

Research Center

2017년 12월 7일

투자전략 Daily

- 스몰캡투자전략
2018년 코스닥 목표지수는 880P
- 중화권 증시 동향
불확실성 확대에 홍콩 증시 급락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유니슨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한솔시큐어 외 5개 종목
- 산업/기업분석
신재생, 에스에프에이, 유진테크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캘린더

전략 총괄 | 노근환
투자 전략 | 박소연
시황 분석 | 김대준
계량 분석 | 안혁
스몰캡 전략 | 정훈석
해외 주식 | 백찬규
중국 시장 | 최설화
신흥국/원자재 | 서태종
글로벌 기업 | 정희석
자산배분전략 | 정현종
경제 분석 | 박정우
채권 분석 | 오창섭
크레딧 | 김기명

true friend 한국투자 증권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 구 분 | | 11/30(목) | 12/1(금) | 12/4(월) | 12/5(화) | 12/6(수) | |
|------|--------|----------|----------|----------|----------|----------|--------|
| 유가증권 | 종합주가지수 | 2,476.37 | 2,475.41 | 2,501.67 | 2,510.12 | 2,474.37 | |
| | 등락폭 | -36.53 | -0.96 | 26.26 | 8.45 | -35.75 | |
| | 등락종목 | 상승(상한) | 296(0) | 346(1) | 400(1) | 520(5) | 250(2) |
| | | 하락(하한) | 504(0) | 426(0) | 387(0) | 282(0) | 547(0) |
| | ADR | 94.55 | 92.14 | 93.64 | 96.47 | 92.53 | |
| | 이격도 | 10 일 | 98.17 | 98.36 | 99.51 | 99.92 | 98.76 |
| | | 20 일 | 97.81 | 97.94 | 99.07 | 99.47 | 98.21 |
| | 투자심리 | 40 | 40 | 50 | 50 | 40 | |
| | 거래량 | (백만 주) | 339 | 289 | 324 | 395 | 505 |
| | 거래대금 | (십억 원) | 9,398 | 5,740 | 6,056 | 5,927 | 6,583 |
| 코스닥 | 코스닥지수 | 771.42 | 787.7 | 782.45 | 774.12 | 768.39 | |
| | 등락폭 | -10.3 | 16.28 | -5.25 | -8.33 | -5.73 | |
| | 등락종목 | 상승(상한) | 318(8) | 745(5) | 469(6) | 664(6) | 460(8) |
| | | 하락(하한) | 854(0) | 378(0) | 684(1) | 483(0) | 686(0) |
| | ADR | 98.88 | 101.48 | 100.21 | 101.59 | 99.51 | |
| | 이격도 | 10 일 | 98.39 | 100.32 | 99.69 | 98.82 | 98.24 |
| | | 20 일 | 101.96 | 103.52 | 102.30 | 100.73 | 99.60 |
| | 투자심리 | 50 | 60 | 50 | 40 | 40 | |
| | 거래량 | (백만 주) | 1054 | 884 | 821 | 860 | 961 |
| | 거래대금 | (십억 원) | 7,136 | 6,900 | 6,956 | 6,871 | 7,402 |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 구 분 | | 개 인 | 외국인 | 기관계 | (금융투자) | (보험) | (투신) | (사모) | (은행) | (연기금 등) | 기 타 |
|------|--------|----------|---------|----------|---------|----------|----------|--------|--------|----------|----------|
| 유가증권 | 매수 | 3,709.1 | 1,553.8 | 1,210.1 | 433.6 | 75.5 | 128.4 | 70.8 | 15.9 | 485.9 | 90.4 |
| | 매도 | 3,469.8 | 1,889.4 | 1,163.7 | 270.0 | 71.2 | 142.2 | 144.8 | 16.9 | 518.6 | 40.5 |
| | 순매수 | 239.2 | -335.5 | 46.4 | 163.7 | 4.3 | -13.7 | -74.1 | -1.0 | -32.7 | 49.9 |
| | 12월 누계 | -226.0 | -350.4 | 517.5 | 374.9 | 63.2 | 97.3 | 10.1 | 12.0 | -39.9 | 58.9 |
| | 17년 누계 | -5,890.2 | 7,727.1 | -6,737.7 | 8,687.6 | -2,073.9 | -3,530.5 | -312.6 | -775.9 | -8,732.7 | 4,900.9 |
| 코스닥 | 매수 | 6,504.5 | 617.0 | 249.0 | 84.4 | 11.2 | 51.2 | 57.1 | 3.2 | 41.9 | 40.8 |
| | 매도 | 6,443.9 | 525.0 | 402.7 | 113.0 | 13.2 | 139.3 | 68.1 | 5.6 | 63.5 | 39.8 |
| | 순매수 | 60.7 | 91.9 | -153.6 | -28.6 | -2.0 | -88.1 | -11.0 | -2.4 | -21.6 | 1.0 |
| | 12월 누계 | 85.6 | 63.6 | -115.2 | 72.8 | -2.1 | -62.9 | -32.5 | -12.3 | -78.1 | -34.1 |
| | 17년 누계 | 2,220.9 | 2,715.1 | -3,108.7 | 158.7 | -338.9 | -946.2 | -689.7 | -90.8 | -1,201.8 | -1,827.3 |

2018년 코스닥 목표지수는 880P

| | |
|--------------------|---------|
| 2018년 Target KOSPI | 2,900pt |
| 12MF PER | 9.58배 |
| 12MF PBR | 1.08배 |
| Yield Gap | 8.4%P |

▶ 한중간 갈등 봉합으로 차이나플레이 재개, 정책적 뒷받침이 중첩되며 코스닥 소외국면 탈출
 ▶ 2000년 이후 코스닥시장이 상승 사이클에 진입할 경우 최소 40% 이상의 시세를 시현
 ▶ 이익의 구조적 증가로 비가역적 상승세 진행, 50P 단위마다 상황적응적 대응이 바람직

■ 코스닥시장 전체 실적을 기초로 산출한 2018년 목표지수는 880P

코스닥지수 추정은
 시장 자체의 특성상
 한계성을 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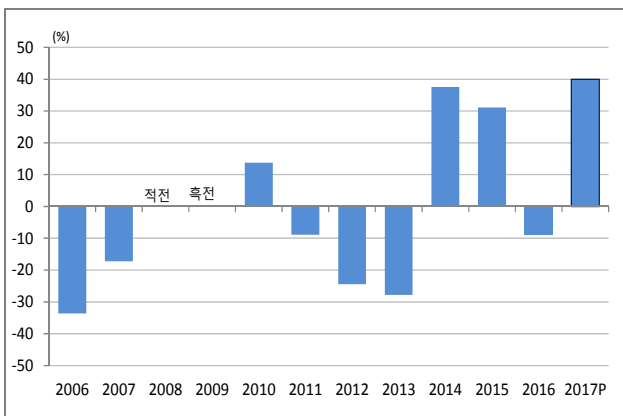
코스닥지수가 11월중 100P 이상 급등하는 초강세를 연출함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내년 코스닥지수 전망치에 대한 관심도도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제한된 커버리지 종목, 실적 추정치의 낙관적 편향성, 신규상장과 퇴출 등 코스닥시장의 특성상 코스닥지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코스닥지수에 대한 현실적인 전망은 시장 대표성이 낮은 추정치를 이용하기보다는 Actual 실적인 전체 코스닥기업의 Trailing Data에 기초하는 것이 타당성이 높다. 이에 금년 3분기 실적까지 반영한 전체 코스닥기업들의 TTM(Trailing Twelve Months) 이익과 코스닥 시가총액을 바탕으로 2018년 코스닥 목표지수를 산출하였다. 코스닥 이익 전망은 사후적으로 보면 실제치가 전망치에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했다. 낙관적 편향성을 제거하고 상정할 수 있는 2018년 코스닥 목표지수는 880P이며, 예상 밴드는 660~880P이다. 물론 코스닥 전체기업이익이 현재의 시장 예상대로 내년에도 안정적 증가세를 보일 경우 코스닥지수는 900P선이나 네 자리수대로의 진입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표 1] 밸류에이션과 이익 증가율에 따른 코스닥지수

| 구분 | | 2018년 순이익 증가율 | | | | | | | |
|-----|----|---------------|-----|-----|-----|-------|-------|-------|-------|
| | | -15 | -10 | -5 | 0 | +5 | +10 | +15 | +20 |
| PER | 25 | 468 | 495 | 523 | 550 | 578 | 605 | 633 | 660 |
| | 30 | 561 | 594 | 627 | 660 | 693 | 726 | 759 | 792 |
| | 35 | 655 | 693 | 732 | 770 | 809 | 847 | 886 | 924 |
| | 40 | 748 | 792 | 836 | 880 | 924 | 968 | 1,012 | 1,056 |
| | 45 | 842 | 891 | 941 | 990 | 1,040 | 1,089 | 1,139 | 1,18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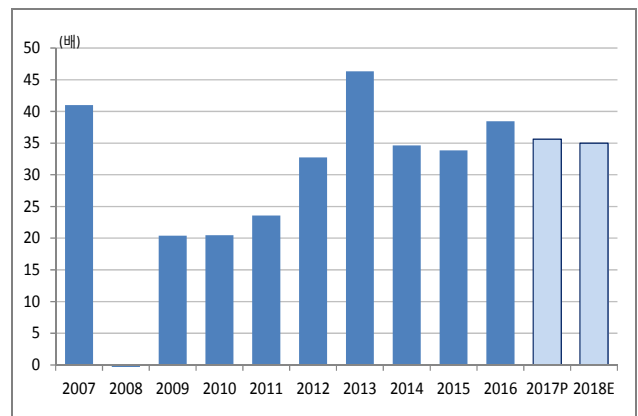
(단위: 배, %, P)

[그림 1] 코스닥전체기업 순이익 증감 추이



주: 각년도의 전년대비 비교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함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코스닥시장 전체 Trailing P/E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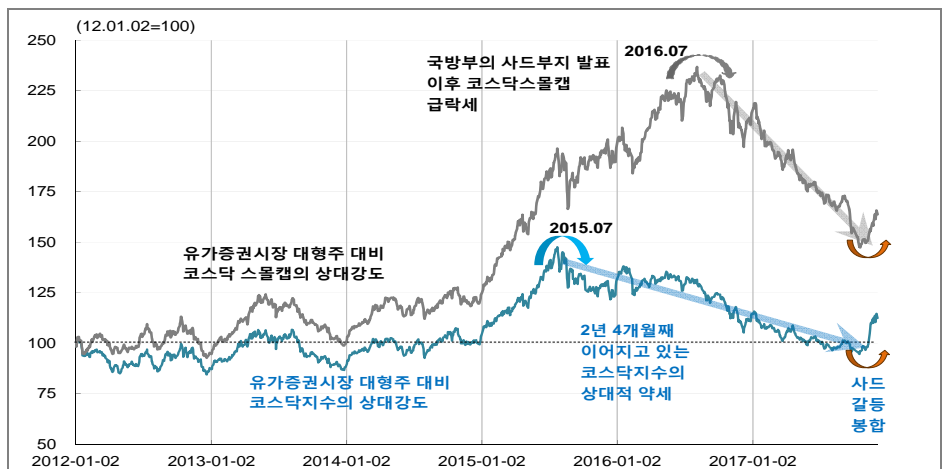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중국이라는
광활한 시장은
한국 중소기업들에게는
성장의 토대

■ 한중갈등 봉합으로 성장 프리미엄 재부여 과정 예상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로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은 구조적이었다. 특히 중국시장 진출을 통한 성장성 제고가 가능한 코스닥 및 중소형주들은 2014~2015년에 리레이팅 과정을 연출하였다. 그러나 2015년 7월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요우커 급감으로, 2016년 7월에는 사드부지 제공에 따른 한중관계 경색으로 인해 차이나플레이주들에 대한 높은 프리미엄은 재조정될 수 밖에 없었다. 사드로 인한 한중 갈등국면이 2017년 10월 한중 통화스왑 연장을 시작으로 봉합국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 다각화를 통한 중소형주의 성장성 제고 가능성이 다시 열린 상황이다. 대중관계가 사드국면 이전으로 완전히 복원된다면 전체 코스닥시장의 PER은 2015년 7월 수준인 40배까지 상승할 여지도 충분하다.

[그림 3] 코스닥지수와 코스닥스몰캡지수의 유가증권시장 대형주 대비 상대강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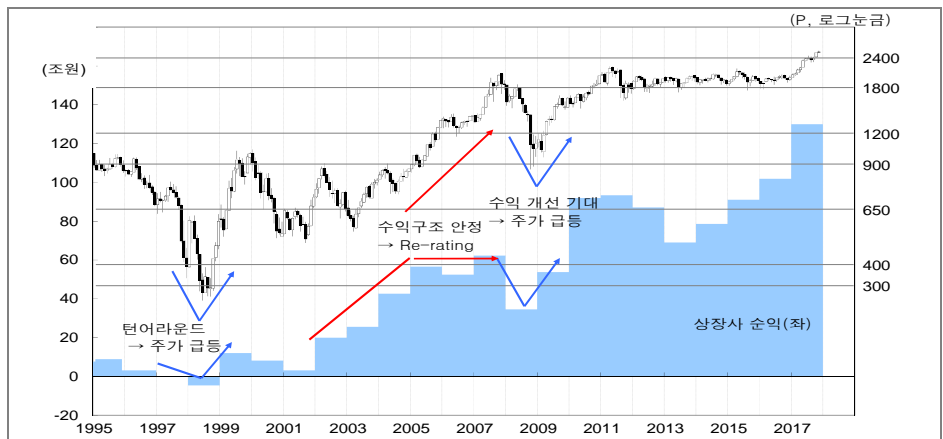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 이익 안정성이 확인될 경우 비가역적인 레벨-업으로 이행

코스닥 기업이익의 구조적
증가 → 코스닥지수의
비가역적 레벨-업

경험적으로 볼 때 i) 기업이 이익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하거나 ii) 이익의 절대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 그리고 iii) 이익의 계단식 증가 이후 비가역성이 확인될 경우에 주가는 구조적 상승세를 연출하게 된다. 이는 주가지수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림 4] 이익의 구조적 변화와 코스피 추이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코스피와 코스닥 통합지수와
코스닥투자 비중 확대가
실현될 경우에는
코스닥 강세장의
발판이 될 전망

대내외 거시지표 흐름에
비추어 볼 때 내년에도
코스닥 기업이익은
견고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코스닥시장 강세의
촉매로 작용한
정부의 코스닥시장
투자비중 확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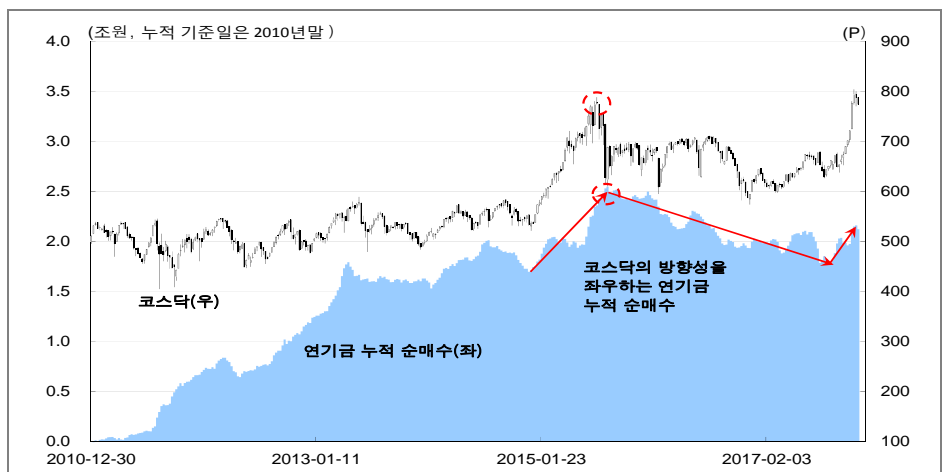
실제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순이익이 1997~1998년의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했던 1999년, 이익이 현저히 급증했던 2010년, 이익 개선세 이후 수익구조 안정기로 접어들었던 2004년~2007년의 경우를 보면 코스피가 두 배 수준의 상승세를 시현하는 모습이었다. 2017년의 경우에도 순이익이 100조원대를 넘어서 수익구조가 안정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스피가 30%에 가까운 상승세를 연출했다.

글로벌 경기의 상승 사이클이 2018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17년 급증세를 보인 코스닥기업들의 전체이익이 2018년에 감익되지 않고 구조적 증가세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코스닥지수는 11월중 랠리가 700P선을 바닥으로 한 비가역적인 레벨-업으로 완료될 공산이 크다. 또한 2017년 3분기 성장률이 분기 성장률로는 29분기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0.77%)를 두 배 가까이 상회했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예상 이상으로 강하다는 방증이자 경기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이 같은 예상외의 성장률 호조는 코스닥 이익이 내년에도 두 자리 수 이상의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실제로 11월 14일까지 3분기 연결 실적을 제출한 코스닥 기업 779곳(12월 결산법인)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2017년 1~9월 누적 순이익(연결기준)은 총 5조3,496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대비 48.4%(1조7458억원) 증가한 수치다. 연간 기준으로 급년 코스닥기업의 전체이익 증가율이 40% 내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실적 개선을 감안할 때 바이오주들을 중심으로 촉발된 11월중 펼쳐진 코스닥 랠리가 IT주뿐만아니라 실적주로 선순환 구도를 이룰 공산이 크다.

■ 정책적 지원을 통한 코스닥시장의 고질적인 수급불균형 탈피

국민연금은 2017년 6월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에 119조1천억원(97.4%), 코스닥시장에 2조6천억원(2.6%)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월말 현재 전체 주식시장에서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 비중이 13.7%에 달하고 있는데 반해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중 코스닥 비중은 3%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11월에 발표한 계획대로 코스닥 투자비중확대가 실현된다면 코스닥수급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이 분명하다. 정부 방침에 대한 기대만으로도 코스닥시장은 소외국면을 탈출하는 모습이였다.

[그림 5] 연기금 누적 순매수와 코스닥지수 추이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탑-다운 측면에서 보면
800P선대는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여지가 충분

민약 국민연금의 코스닥투자 비중이 11월 정부가 발표한 10%까지 늘어나지 않고 최소한도에 그친다 하더라도 코스닥수급은 상당 폭 개선될 여지가 있다. 단계적 비중확대 계획에 따라 2018년 코스닥투자비중이 1%만 확대된다 하더라도 연기금이 코스닥시장에서 순매수 해야 할 규모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이는 연기금이 코스닥시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매수하면서 초강세를 연출했던 2015년을 상회하는 규모이다. 더욱이 연기금의 코스닥 비중 확대는 여타 기금 및 공제회, 투신 등의 선제적 및 동반적 매수세를 유입시킬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코스닥시장의 판도가 변모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특히 정부가 코스닥시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 방안에 코스닥 비중 확대 계획과 코스피와 코스닥 통합 벤치마크 지수를 포함할 경우 내년 코스닥시장의 수급은 2015년 강세장 이상으로 호조를 보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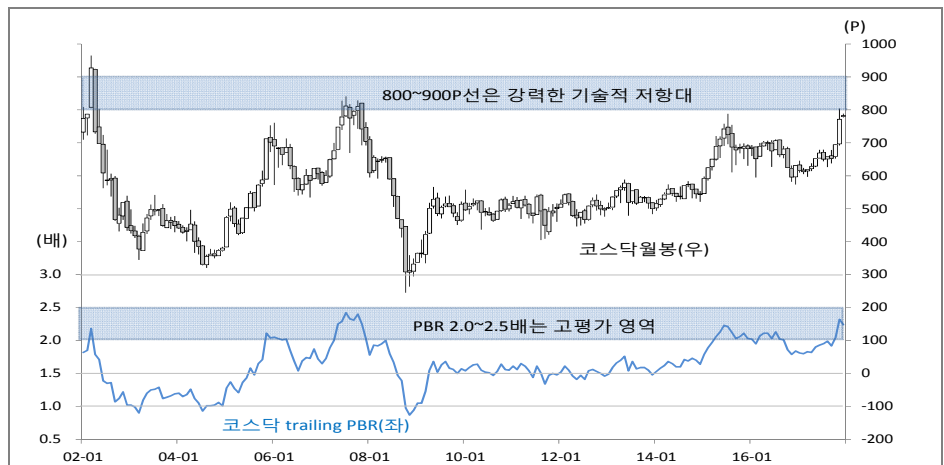
하지만 11월 16일 국민연금 기금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기금위원회는 어떠한 결정도 내린 바가 없으며, 오히려 수익률 제고를 위해 2018년 국내 주식투자 비중 축소 및 글로벌 주식투자 비중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국민연금 납입규모를 감안할 때 절대액 측면에서는 국내 주식투자 규모가 늘어나겠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마찰 및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조만간 발표할 정부의 자본시장 혁신방안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칠 경우에는 일정수준의 조정과정이 연출될 여지가 있다.

■ 라운드 넘버이자 역사적 고점인 800P의 저항에 직면한 코스닥

1999~2000년 버블기를 제외하면 코스닥지수의 역사적 고점은 800~900P에 걸쳐있고, Trailing PBR 기준으로 2.0 배 이상은 고평가 영역이며 2.5배를 넘어선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된다. 경험적으로 볼 때 이익의 구조적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역사적 저항선을 비가역적으로 돌파하기는 어렵다. 2017년 코스피가 반도체 산업의 폭발적인 이익급증을 기반으로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듯이, 코스닥도 역사적 고점 혹은 한계선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결국 이익의 구조적 증가가 담보되어야 한다. 코스닥기업들의 이익 불확실성과 이익 가변성을 감안할 때 금년 1~3분기의 이익 개선 추세가 4분기와 내년 1분기에도 지속성을 보일 것인지, 2017년의 이익 개선세가 2018년에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물론 바텀-업을 기준으로 한 컨센서스 상의 예상이익 측면에서 보면 코스닥지수는 역사적 저항선을 돌파할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바텀-업 측면에서 보면
800P선대의
저항선 돌파 여지는 충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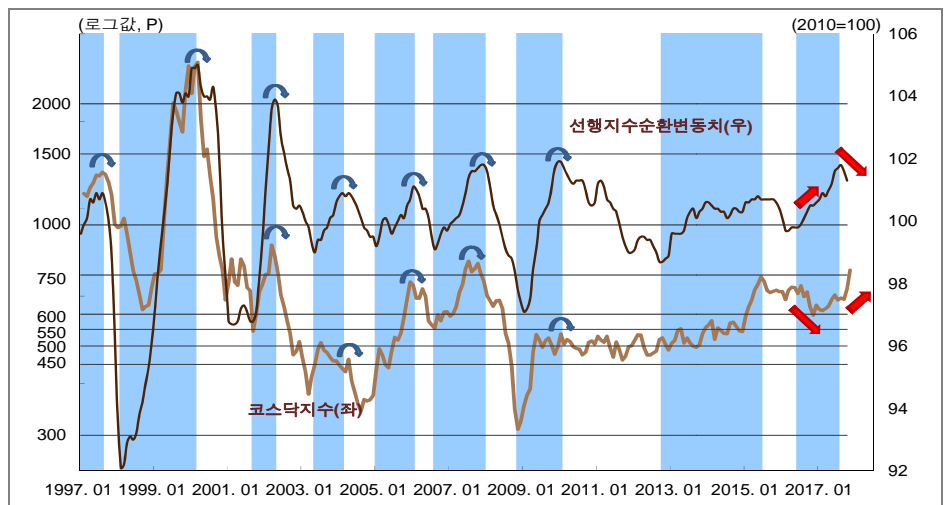
[그림 6] 코스닥 월봉과 PBR 추이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하지만 탐다운 측면에서 바라보면 내년 경제성장률과 수출이 올해와 같이 예상 외의 호조를 보이지 않을 경우 코스닥 기업이익의 구조적 증가를 확산하기는 쉽지 않다. 거시 지표 흐름을 대표하고 있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코스닥지수의 경험적 관계를 보면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고점과 코스닥지수의 중기 고점은 예외 없이 일치성을 보여왔다. 물론 예외 없는 법칙이 없다고는 하나 최근의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코스닥지수의 탄력적인 상승세보다는 조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내년 1분기에도 선행지수의 하락 사이클이 이어질 경우에는 코스닥시장의 하락 압력이 높아질 공산이 크다.

[그림 7] 코스닥지수와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 단기적으로는 매물 소화과정과 이익 안정성 확인과정이 필요

종합해 보면 금년 이익 증가세를 감안할 때 코스닥지수가 750P선 안착은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 사드로 초래된 코스닥시장의 700P선 이탈을 예외적인 국면이라고 보면 코스닥지수가 코스피의 역사적 신고가 국면에 보조를 맞추어 700P선을 빠르게 통과해 700P선 후반을 주 거래선으로 삼는 것은 무리가 없다. 하지만 기술적 저항과 밸류에이션 부담을 고려할 때 800P선으로 진입을 위해서는 이익의 구조적 증가와 거시지표 개선세가 추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코스닥지수가 800P선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익 안정성과 글로벌 경제의 순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추가적인 확신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코스닥 상장사 전체이익중 헬스케어 섹터의 2017년 1~3분기 누적 순이익 비중이 11%에 불과함에도 11월말 현재 시총 비중이 33%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헬스케어 섹터의 과속 우려는 당연하다. 즉, 중기적으로는 코스닥 바이오기업은 과속에 따른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코스닥지수가 700P선 돌파에 이어 800P선으로의 직행보다는 일정한 숨고르기는 거쳐야 할 과정이다. 코스닥 IT섹터의 경우 이익비중이 49%에 달하고 있는데 반해 시총 비중은 아직 35%에 머물고 있다. 결국 헬스케어 종목에 집중되었던 시장 매기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IT섹터 등으로 안정적으로 유입되며 선순환 구조가 전개될 수 있느냐가 코스닥지수의 안정적 레벨-업 과정의 일차적인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한 4분기 실적 개선 모멘텀 확인도 코스닥지수가 800P선 진입을 위해 거쳐야 할 관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복핵과 관련한 지정학적 리스크 돌출도 일정기간 코스닥시장의 발목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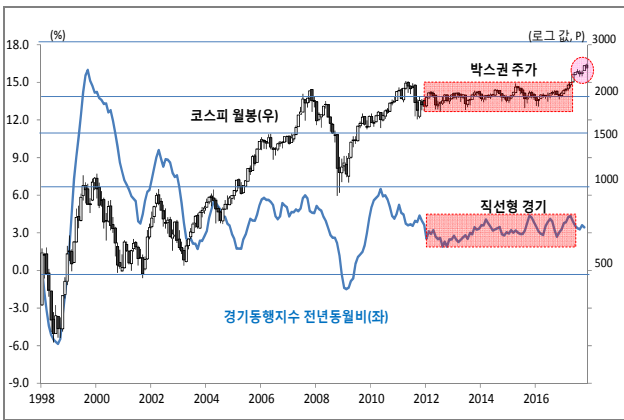
대내외 경기 순향과 이익의 구조적 개선을 확인하기 전까지 주 거래선은 700P선 중반

■ 제2의 벤처붐이 도래할 경우 코스닥지수는 네 자리수대 진입

직선형 경기로 인해 지난 5년간 박스피 장세를 연출했던 코스피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한 이익 급증에 힘입어 2,200P선을 구조적으로 넘어섰듯이, 코스닥지수도 이익 개선세를 바탕으로 코스피에 후행해 2012년 이후 형성되었던 450~800P선의 박스권을 넘어설 개연성이 충분하다. 실적, 수급, 밸류, 기술적 측면에서 공히 코스닥 목표지수는 800P선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정황적으로도 세계 주요증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 관성에 간혀 코스닥지수 상승 폭을 한계 지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더구나 코스닥시장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코스닥시장의 특성상 오버슈팅 국면 연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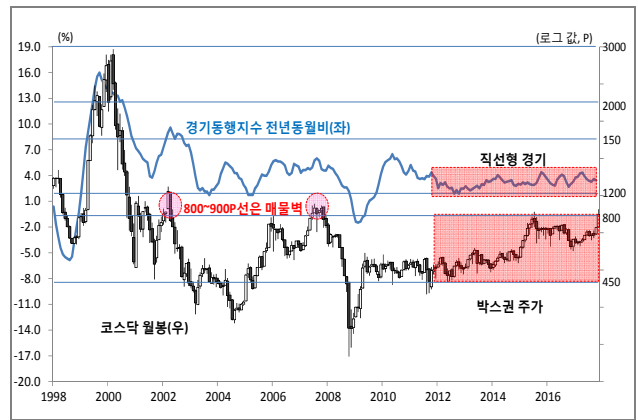
박스피를 탈출한
코스피에 후행해
코스닥도 800P선의
저항 극복 시도 예상

[그림 8] 박스피를 탈출한 코스피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그림 9]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선 코스닥지수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특히 대내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구조적 변혁기에 진입한 가운데 벤처·창업활성화 지원 및 세제 혜택, 그리고 벤처 중소기업부 신설 및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 등 정부의 각종 지원, 연기금의 코스닥 시장 투자확대 방안, 금융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추진 등을 고려할 때 제2의 벤처 붐이 도래할 경우에는 코스닥지수의 네 자리수대에 진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여지도 충분하다.

Appendix | 2018년 코스닥 유망주 접근

[표 2] 2018년 코스닥 유망주 선별

(단위: 십억원, 배)

| 업종/테마 | 종목명 | 매출 | | 영업이익 | | 당기순이익 | | 2018F |
|--|--|--|-----|-------|--------|-------|--------|-------|
| | | 2018F | YoY | 2018F | YoY | 2018F | YoY | P/E |
| 미디어 | 나스미디어 | 144 | 17% | 42.1 | 22.2% | 29.5 | 20.4% | 20.9 |
| | | 내수활성화 정책 및 대형 스포츠 이벤트로 사상 최대 광고 취급고 전망 | | | | | | |
| | CJ E&M | 1,935 | 10% | 111.1 | 28.6% | 150.7 | -68.9% | 22.5 |
| | | 해외 시장과 더불어 글로벌 OTT(Over The Top)시장 성장의 최대 수혜 | | | | | | |
| 유통 | 다나와 | 114 | 19% | 18.1 | 26.7% | 16.8 | 26.8% | 10.7 |
| | 플랫폼 확장에 따른 구조적 성장 기대 | | | | | | | |
| | 도이치모터스 | 1,083 | 16% | 63.8 | 234.9% | 33.3 | 231.8% | 4.4 |
| | CJ오쇼핑 | 1,239 | 7% | 181.8 | 9.2% | 137.1 | 10.8% | 10.8 |
| | | 내수회복과 소비증가에 따른 수혜 전망 | | | | | | |
| 레저 | 모두투어 | 320 | 12% | 40.4 | 18.6% | 31.6 | 20.7% | 20.5 |
| | 여행시장의 구조적 성장에 따른 실적 성장 지속 전망 | | | | | | | |
| | 파라다이스 | 981 | 43% | 95.3 | 흑전 | 48.1 | 흑전 | 47.3 |
| | | 빠른 실적 개선이 기대되며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 따른 수혜 전망 | | | | | | |
| 전기차 | 에코프로 | 546 | 62% | 51.2 | 81.0% | 34.5 | 262.2% | 21.6 |
| | 대규모 증설에 따른 급격한 실적 성장 기대 | | | | | | | |
| | 피엔티 | 179 | 24% | 16.9 | 47.6% | 12.3 | 77.0% | 8.7 |
| | | 보유중인 대규모 수주 잔고와 중국 턴어라운드 기대 | | | | | | |
| IT | 고영 | 248 | 22% | 54.5 | 26.4% | 45.6 | 34.2% | 25.8 |
| | MOI(Machining Optical Inspection) 사업의 성장 및 신규사업 기대 | | | | | | | |
| | 코미코 | 144 | 16% | 32.4 | 17.1% | 21.7 | 18.0% | 10.2 |
| | 와이솔 | 513 | 13% | 50.4 | 12.3% | 39.6 | 12.4% | 8.8 |
| | | IoT(사물인터넷) 시장 확대에 따른 관련 모듈 매출 증가 기대 | | | | | | |
| 전자장비 | 코텍 | 359 | 14% | 40.6 | 22.2% | 33.4 | 31.2% | 7.5 |
| | 카지노 모니터 부문의 성장 국면 진입으로 빠른 실적 개선 기대 | | | | | | | |
| | 신성델타테크 | 546 | 15% | 24.3 | 30.0% | 16.2 | 12.1% | 6.8 |
| | | 가전부문의 실적 개선 및 폴란드 공장 증설에 따른 성장 기대감 확산 | | | | | | |
| 통신장비 | 아이앤씨 | 65 | 38% | 10.0 | 56.3% | 9.0 | 25.0% | 9.6 |
| 2017년 실적 개선에 이어 한전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따른 수혜 지속 전망 | | | | | | | | |
| 교육 | 씨엠에스에듀 | 81 | 20% | 16.3 | 22.9% | 12.9 | 25.1% | 12.4 |
| 안정적 성장과 더불어 코딩교육 정규과목 편입에 따른 정책적 수혜 전망 | | | | | | | | |
| 보안 | 한솔시큐어 | 17 | 4% | 1.0 | 흑전 | N.A | N.A | *6.8 |
|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물인터넷 생태계 확장에 따라 eSIM 수요 증가 전망 | | | | | | | | |
| 미세먼지 | 크린앤사이언스 | 92 | 23% | 11.0 | 37.5% | 9.0 | 50.0% | 9.0 |
| 필터의 평균판매가격 상승 및 판매량 증가에 따른 구조적 성장 전망 | | | | | | | | |
| 식품 | 매일유업 | 1,380 | 14% | 79.2 | 14.2% | 58.2 | -42.1% | 6.0 |
| 중국향 분유 수출 개선 기대 및 원유 손실 축소에 따른 마진 개선 전망 | | | | | | | | |
| 의료기기 | 휴비츠 | 82 | 11% | 15.1 | 26.1% | 13.1 | 22.5% | 12.4 |
| 보급형 신제품 출시에 따라 동유럽, 남미 등 수출 확대 기대 | | | | | | | | |
| 풍력발전 | 유니슨 | 211 | 15% | 23.0 | 27.8% | 17.0 | 88.9% | 19.2 |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른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의 구조적 수혜 | | | | | | | | |

주1: 2017년 12월 5일 기준

주2: * 표시는 2017F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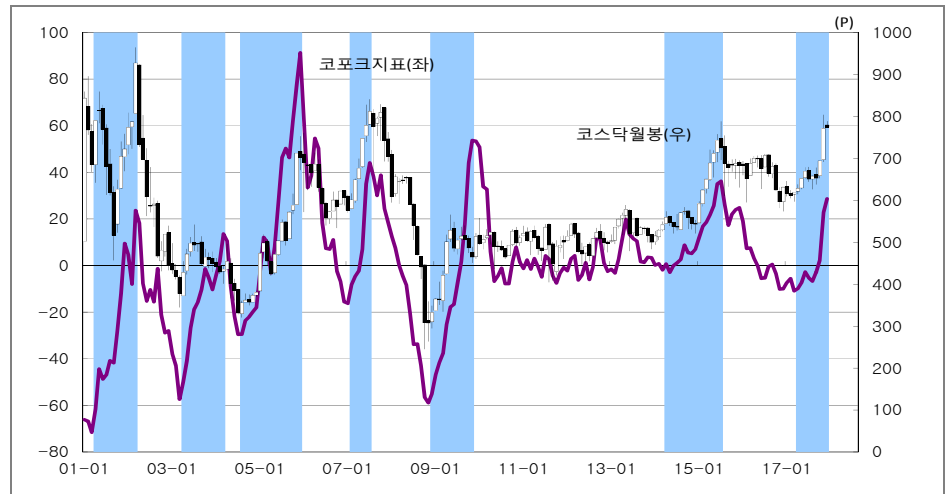
Appendix II : 2018년 코스닥지수 접근

과거 강세장의
기술적 흐름을
대입할 경우
코스닥 목표지수는 880P

■ 기술적 방법을 통한 접근

장기 추세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코포크지표(Coppock Index)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된 이후 코스닥지수의 최저 상승률은 43%, 평균적인 상승률은 80%이다. 최저 상승률과 평균 상승률을 코스닥지수에 대입해 보면 코스닥지수의 목표치는 각각 880P, 1100P이다

[그림 10] 코스닥 월봉과 코포크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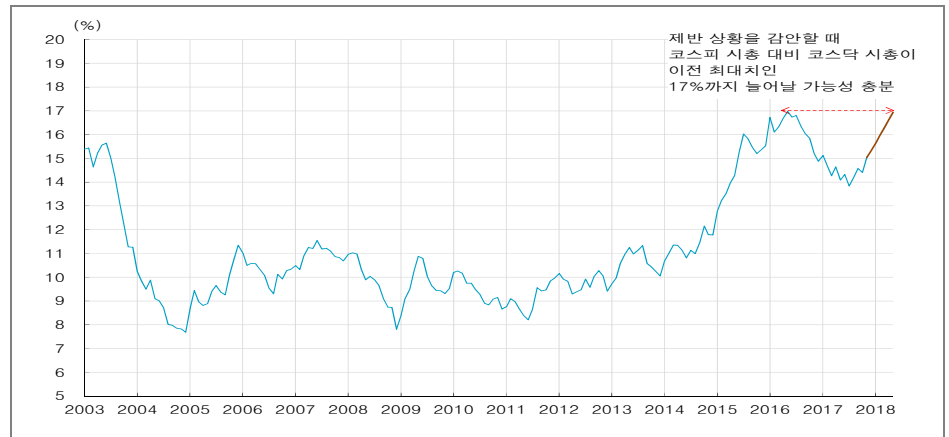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코스피 대비 코스닥
시총비중을 대입한
코스닥 목표지수는 920P

■ 유가증권시장과의 상대비교를 통한 접근

직전 코스닥 강세국면이었던 2015년 고점 시 코스피 시가총액대비 코스닥의 시가총액의 비중은 17%였다. 내년 당사의 코스피 목표치 2,900P와 코스피 대비 코스닥 시총 비중을 대입해 설정할 수 있는 코스닥지수 목표치는 920P이다

[그림 11] 코스피 시총 대비 코스닥 시총 비중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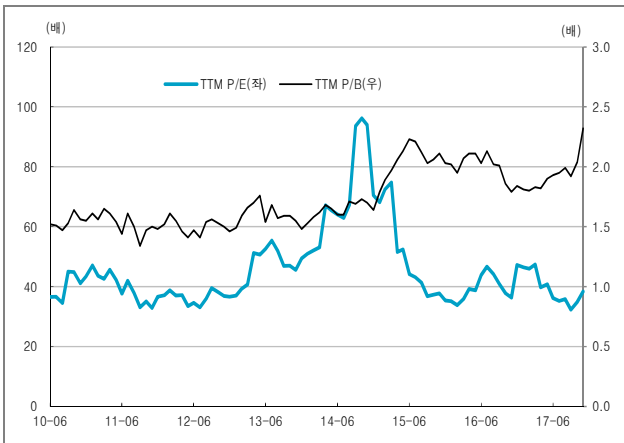
■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접근

Trailing PER 평균치를
대입한
코스닥 목표지수는 920P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는 12MF PER이지만 코스닥 시장의 경우 커버리지 종목수가 협소해 예상이익의 대표성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며, 커버리지 종목의 예상치도 애널리스트의 낙관적 편향이 크게 작용해서 신뢰도가 높지 못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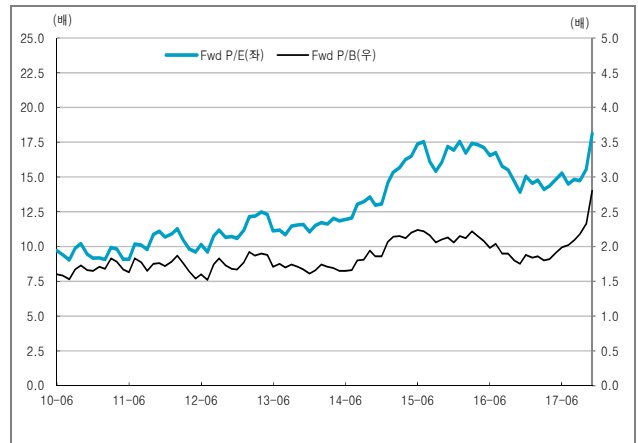
Actual PER(전체 코스닥기업 평균 시가총액/ 전체 코스닥기업 순이익) 35배가 코스닥 시장 접근에 나온 기준이 될 수 있다. WiseFn의 자료에 근거해 보면 예상 P/E와 예상 P/B는 현재가 역사적 최고치로 시계열적인 비교는 타당성이 높지 않다. Trailing P/B 또한 역사적 최고치를 넘어선 상태로 적정 목표지수를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코스닥시장은 과열권에 진입했음이 분명해 보인다. 다만 감익국면이 연출되었던 2014년의 경우 Trailing P/E가 96배가 치솟은 적이 있지만 이를 기준으로 삼아 코스닥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WiseFn이 발표하고 있는 Trailing PER는 2010년 6월 이후의 평균치인 45배를 적용한 코스닥 지수는 900P로 산출된다.

[그림 12] Trailing P/B와 P/E 추이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그림 13] 예상P/B와 P/E 추이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 이익 모멘텀 측면에서의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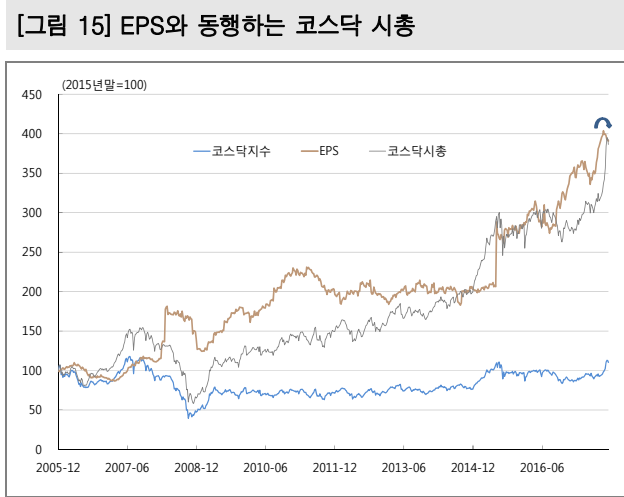
내년 예상이익 증가율과
리레이팅 가능성을
감안할
코스닥 목표지수는 970P

주가는 결국에는 수익 개선세를 투영하기 마련이다. 코스닥지수가 예외일 수는 없다. 12개월 예상이익을 보면 유가증권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시장의 수익도 가파른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에 들어서면서 코스피는 수익 호조세를 반영해 탄력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역사적 신고가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데 반해, 이익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상승세에 그치던 코스닥지수가 4분기 들어 지난 2분기와 3분기의 이익 개선세를 급격히 반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장 컨센서스 상 내년 코스닥시장의 예상이익 증가율이 30%를 상회하고 있다. 내년 이익 증가율만 반영하더라도 내년 코스닥지수의 목표치는 850P로 산출할 수 있다.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코스닥기업들이 이익 증가세를 이어갈 경우에는 이익 규모의 구조적 증가에 기반한 리레이팅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를 감안한 코스닥 목표지수는 970P이다. 2018년에는 이익 개선세 모멘텀만을 반영한 실적 장세와 이익의 비가역적 증가를 반영한 리레이팅 장세가 겹쳐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코스닥지수의 네 자릿수 대 진입이 예상

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 다만 상향 조정되던 코스닥 기업이익 추정치가 유가증권시장 기업이익 추정치와는 달리 11월 중순 이후 하향 조정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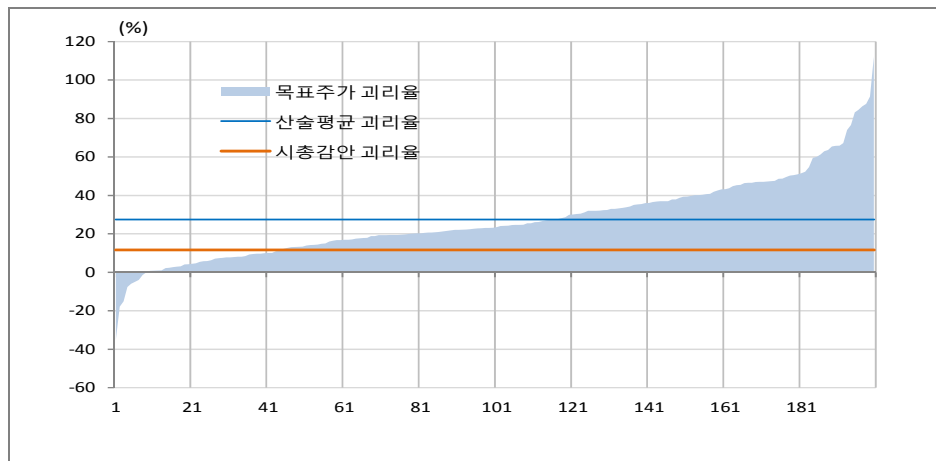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커버리지 종목들의
목표주가가 달성될 경우를
상정한
코스닥 목표지수는 870P

■ 목표주가를 고려한 접근

11월말 현재 코스닥종목들 중 목표주가가 존재하는 204개 종목이 공히 목표주가에 도달한 경우를 가정한 코스닥 목표지수 870P이다. 하지만 그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목표주가를 고려해 상정할 수 있는 목표지수를 코스피나 코스닥지수가 곧바로 직행한 적은 없었다. 단기에 코스닥지수가 800P선 중반대로 진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림 14] 목표주가가 제시된 코스닥종목의 현재주가와 목표주가의 괴리율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불확실성 확대에 홍콩 증시 급락

- ▶ 상해종합지수는 0.3% 하락, 시장에 유동성 긴축 우려가 확대된 것이 악재로 작용
- ▶ 홍콩H지수는 2.8% 급락,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이 악재로 작용

상해종합지수 0.3% 하락,
보험, 은행, 철강, 귀금속 등
의 업종 하락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는 0.3% 하락한 3,294p로 마감하며 4개월만에 3,300선을 하회했다. 거래대금은 1,792억위안으로 직전일 대비 26% 감소했다. 악재로 출발한 주식시장은 장중 1%이상 하락했으나, 마감직전 IT를 비롯한 신 성장주의 반등 속에 낙폭이 축소됐다. 금일 인민은행이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를 통해 만기도래하는 MLF물량을 상쇄시켰으나,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없었다는 점이 시장에서 우려로 작용했다. 업종별로는 보험, 은행, 철강, 귀금속 등이 하락한 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통신 등의 신성장 업종은 상승했다. IT업종의 강세 속에 장중 약세를 보이던 차스닥 지수는 1.5% 반등한 1,784p로 마감했다. 한편 금일 상해증시와 심천증시의 엇갈린 흐름 속에 외국인들은 38.6억위안 규모의 상해A주와 0.7억위안 규모의 심천A주를 순매도했다.

홍콩H지수 2.8% 급락
자동차와 보험을 비롯한 모
든 업종 하락

■ 홍콩 시장

홍콩H지수는 2.8% 급락한 11,163p로 마감했다. 다음주 FOMC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확대된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시킬 것이라는 보도에 따라 지정학적 불안요인이 확대된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 또한 본토의 금융규제 강화 우려와 유동성 긴축 우려가 부각된 점도 주식 시장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모든 종목이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자동차와 보험주의 낙폭이 컸다. 한편 항셱지수도 IT와 보험 업종의 약세 속에 2.1% 하락한 28,225p로 마감했다.

◆ 중국 주요 금융지표 추이

(단위: p, %)

| 구분 | 12/6 (수) | 전일 대비(%) | 5거래일 전 대비(%) | 1개월 전 대비(%) | 연초 대비(%) |
|-----------------------|-----------|----------|--------------|-------------|----------|
| 상해종합 | 3,293.97 | -0.29 | -1.32 | -2.78 | 6.13 |
| 심천종합 | 1,879.65 | 0.68 | -2.05 | -5.98 | -4.54 |
| 차스닥 | 1,784.32 | 1.46 | -0.17 | -3.57 | -9.06 |
| 홍콩H | 11,162.58 | -2.80 | -4.17 | -3.14 | 18.82 |
| Shibor 7일물 금리(% , %p) | 2.79 | -0.43 | -2.24 | -0.36 | 9.60 |
| Shibor 1개월 금리(% , %p) | 4.34 | 0.82 | 4.23 | 8.33 | 31.26 |
| 중국국채 3년물(% , %p) | 3.89 | 0.13 | -1.15 | 0.69 | 28.38 |
| 위안/달러 고시환율 | 6.6163 | 0.08 | 0.15 | -0.13 | -4.62 |
| 역내 위안/달러 | 6.6144 | 0.07 | 0.03 | 0.29 | 5.00 |
| 역외 위안/달러 | 6.6196 | -0.02 | -0.11 | 0.08 | 5.39 |

주: 6일 오후 6시 2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코스피 2,480P선 아래로 밀려남

- 뉴욕증시는 세계개혁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연방정부 폐쇄 우려 등으로 일제히 하락 마감. 소폭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금융투자, 연기금 등 일부 기관과 개인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세와 이로 인한 국가지방단체 및 투신 등의 프로그램 매도세로 하락반전해 낙폭을 확대하며 2,480P선이 무너지는 급락세로 마감. 코스닥은 외국인이 사흘 만에 순매수세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신을 비롯한 기관 매도세로 사흘 연속 하락하며 770P선 아래로 밀려남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폴리머 안정제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 전망에 송원산업이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으며, 기존 제품 대비 효과가 뛰어난 안구건조증 신약에 대한 기대감에 지트리비엔티가 신고가를 경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며 KTB투자증권이 25% 이상 급등했으며, 보호예수를 앞두고 급락했던 신라젠은 보호예수 첫날 우려와 달리 강세를 보임. 또한, 캐터필러와 3,700억원 규모의 대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한 진성티이씨가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정부가 비트코인 선물의 국내 거래를 제한한 반면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선 비트코인 선물거래 도입을 준비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수혜 기대감에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짐. 반면, 올해와 내년 적자 전망과 함께 1조5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한 삼성중공업이 폭락했으며, 반도체 장비 관련 부품과 화학 소재 업체인 메카로는 신규 상장 첫날 공모가를 웃도는 시초가를 형성했으나 차익실현 매물로 급락세를 보임

| 종목/테마 | 내 용 |
|---|--|
| 송원산업(004430) ▶28,500 (+5.75%) | 실적 성장 기대감에 신고가 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전통적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폴리머 안정제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실적 개선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 아울러, 미국의 에탄분해설비(ECC)와 중국의 나프타분해설비(NCC) 신증설이 각각 2020년과 2025년까지 계속되면서 폴리머 안정제의 구조적 상승세는 수년간 이어질 것으로 기대 |
| 진성티이씨(036890) ▶10,750 (+5.91%) | 대규모 공급계약 소식에 신고가 경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터필러와 3,731억원 규모의 롤러(Roller), 아이들러(Idler), 씰(Seal) 하부주행체 부품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신고가 경신 - 계약 규모는 지난해 매출액 대비 209.83%에 해당하며, 미주, 아시아, 유럽 등 캐터필러의 판매지역 예상 물량의 최소 70%를 공급할 예정 |
| 비트코인 관련주 | 가상화폐 시장 성장 기대감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정부의 규제 강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최고가를 경신하며 시장 확대 기대감에 강세 - 한일진공(123840), 디지털옵틱(106520, 이상 상한가), 케이피엠테크(042040, +21.80%), 옴니텔(057680, +21.68%), 제이씨현시스템(033320, +20.97%), 비덴트(121800, +9.33%) 등 강세 |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2주 신고가 및 상한가

| 종목 | 내 용 |
|--|--|
| 지트리비엔티(115450) ▶34,800 (+5.7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구건조증 신약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내년 1분기 신약 판매허가를 위해 미 FDA와 미팅이 예정되어 있으며 기존 약품 대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판매 허가 시 매출 증가 기대 |
| 한스바이옴(042520) ▶27,600 (+8.2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리콘 폴리머 매출액 증가, 고수익성 의료기기 판매 확대, 바이오 사업 개시 등에 따른 성장성이 부각되며 신고가 경신 |

단기 유망종목: 유니슨 외 5개 종목

(단위: 원, %)

| 종 목 (코드) | 현재가 (수익률) | 편입가 (편입일자) | 투자 포인트 |
|---------------------|-------------------|-------------------|---|
| 유니슨 (018000) | 4,210 (-3.1) | 4,345 (12/0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른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로 구조적 수혜 전망 - 작년까지 적자를 기록했던 중국법인이 공정 효율화와 중남미 수주 확대에 따른 가동률 회복으로 올해 턴어라운드 성공했고, 내년에도 이익 개선세는 이어질 전망 - 순이익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PER은 2018년 19.1배, 2019년 12.3배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 |
| 다나와 (119860) | 13,650 (+26.4) | 10,800 (11/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의 보급과 IT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쇼핑 증가에 따라 가격비교 수요의 저변확대에 따른 수혜 전망 - PC중심에서 가전/가구, 생활용품, 패션잡화 등으로의 플랫폼 확장에 따른 레버지리 효과 기대 - 시가총액의 약 30%에 해당하는 순현금 보유로 추가 하방경직성 확보 |
| 하이비전시스템 (126700) | 12,800 (-1.2) | 12,950 (1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듀얼카메라와 3D카메라 시장의 확대와 고사양화에 따른 검사장비 수요 증가 전망 - 하반기부터 신규 거래처와 장비 매출이 추가되며 삼성과 애플이 전략 스마트폰에 듀얼카메라를 탑재함에 따른 수혜 전망 - 18년 예상 PER 8.4배로 Peer 업종의 평균 PER 16배 대비 저평가 |
| 삼성엔지니어링 (028050) | 13,300 (+9.9) | 12,100 (1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분기까지 중동 플랜트 시장에서 가장 많은 수주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어 글로벌 업체 중 Best performer로 자리매김할 전망 - 최근 유가 상승에 따라 PTT, 페트로나스, SABIC 등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발주처의 투자 재개 전망 - 급속한 턴어라운드에 따라 2018년 예상 PER은 16.6배까지 낮아질 전망 |
| 한솔케미칼 (014680) | 75,000 (+4.5) | 71,800 (9/2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용 과산화수소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3분기 매출액은 1분기 수준까지 회복될 전망 - 국내 공장이 100%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초부터 신규 설비가 가동되며 매출액 증가 전망 - 금년 초부터 공급되기 시작한 DPT(Double Patterning Tech) 소재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자회사인 테이팩스의 전자재료 사업도 신제품 공급으로 성장폭이 확대될 전망 |
| 포스코강판 (058430) | 28,600 (-3.4) | 29,600 (9/2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P(World Premium) 제품 확대를 통한 제품믹스 개선 전망 - 3분기 중국 컬러강판 가격이 크게 상승해 하반기 실적 개선 예상 - 2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여전하고 높은 배당 성향으로 투자 매력 상존 |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SK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한솔시큐어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 종 목 (코드) | 현재가 (수익률) | 편입가 (편입일자) | 2017년 추정실적 | | | | | |
|---------------------|-------------------|-------------------|------------|-------|-------|--------|------|---|
| | | | 매출액 | 영업이익 | 순이익 | EPS | PER | |
| 한솔시큐어 (070300) | 5,910 (+0.5) | 5,880 (12/05) | 15 | (1) | 6 | 826 | 7.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물인터넷 생태계의 확장은 eSIM(embedded SIM)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전망 - 보안솔루션 전문기업인 G+D(독일 스마트카드업체인 G&D의 자회사)의 지분 투자에 따라 시너지 효과 기대 - 2018년 하드웨어 보안을 강화하는 TEE(Trusted Execution Environment) 사업을 재개함에 따라 보안 인식 강화에 따른 수혜 전망 |
| 크린앤사이언스 (045520) | 12,500 (+0.0) | 12,500 (11/13) | 75 | 8 | 6 | 1,030 | 12.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 변화와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공기청정기 수요의 구조적 증가 전망 - 국내 공기청정기 제조사들의 중국 진출에 따른 수혜 전망 - 10월 공기청정기 수요 증가와 신규 고객 유입 대응을 위한 MB(부직포) 증설로 레버리지 효과 기대 |
| 송원산업 (004430) | 28,500 (+43.6) | 19,850 (10/18) | 739 | 70 | 44 | 1,847 | 15.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내 폴리머 수요 증가와 국내 윤활유 첨가제 Capa 증설로 비수기인 4분기 호실적 달성 전망 - 올해 4분기~내년 1분기 사이 신규 크래커 가동에 폴리머 안정제 수요가 증가할 전망 - 수년간 이어질 미국 석유화학 증설 랠리의 초입 단계로 향후 구조적 성장 지속 전망 |
| 이엠텍 (091120) | 17,600 (+24.8) | 14,100 (7/20) | 256 | 21 | 15 | 1,060 | 16.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유일의 BA(Balanced Amature)스피커 생산 업체로 스피커 활용기술 발전에 따른 수혜 전망 - 지난해 베트남 공장 증설과 자동화 설비 확대를 통한 생산성 확대와 인건비 절감 예상 - 갤럭시노트8과 V30 출시로 하반기 마이크로스피커와 리시버 관련 매출 증가 전망 |
| KG ETS (151860) | 4,100 (-2.8) | 4,220 (7/5) | 125 | 20 | 15 | 428 | 9.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티프 판가와 동 가격이 동반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 - 국내 주요 FPCB업체들의 증설로 인한 전자소재 사업부의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 -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지정 폐기물 비중 상승으로 환경 사업부의 수혜 전망 |
| SK (034730) | 296,500 (+5.9) | 280,000 (5/29) | 92,094 | 6,175 | 6,025 | 39,396 | 7.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주주환원정책과 재벌기업 지배구조개선 정책에 따른 수혜 전망 -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자회사들의 실적 상향 추세 지속 전망 - 실트론 인수를 통한 자회사 간 시너지와 탈석탄 발전정책에 따른 반사이익 전망 |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SK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신재생: 신재생, 더 이상 테마가 아니다

■ 신정부 에너지 정책의 방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올 연말 정부가 발표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은 본격화 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2016년 7.2%)라는 다소 공격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총 동원할 것이다. 이미 정부는 가장 확실한 1세대 재생발전인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중심으로 확대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작년 말 기준 4.5GW의 태양광발전 용량은 2030년까지 35.3GW로 늘어날 것이며, 1.0GW 규모의 풍력발전 설비는 17.6GW로 늘어날 것이다. 연간 약 2.3조원의 기존 재생에너지 시장규모가 세 배 수준으로 커지는 것이다.

■ 2022년까지 태양광/풍력발전 확대는 확실

정부 목표인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많다. 하지만 이번 정부 임기기간인 2022년까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은 확실하다. 2022년까지 전력 수급 문제는 없고, 전기요금 인상요인도 없으며, 대상 부지도 충분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전의 발전자회사 주도(총 32GW, 필요 설비의 약 66%)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에서, 재생에너지는 테마가 아닌 곧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 풍력 top pick: 유니슨 제시

신재생 산업에 대해 비중확대 의견을 제시한다.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는 태양광 보다 국내 풍력업계에 더 클 것으로 판단하며, top pick으로 유니슨을 제시한다. 그 외 씨에스윈드, 동국S&C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 '매수'로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2월 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에스에프에이(056190)

매수(분석재개)

목표가: 59,000원

종가(12/5): 40,800원

OLED 장비 수주 제 2라운드

■ 중국 OLED향 수주 시작. 수주절벽은 없다

중국 패널업체의 OLED투자,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신공장 투자의 수혜를 받는 에스에프에이에 대해 투자이전 ‘매수’와 목표주가 59,000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2018년 추정 EPS에 목표PER 11배를 적용했다. 2018년 삼성디스플레이 OLED투자 감소에 에스에프에이의 신규수주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 중국 6세대 OLED 투자 규모는 2H17~2018년 총 168K/월 수준으로 삼성디스플레이의 2016년~1H17 150K 대비 크다. 2018년 국내 고객사 투자 감소에도 중국 패널업체의 투자로 신규 수주액은 전년대비 10% 증가해 수주절벽은 없다.

■ 다양한 장비 포트폴리오, 중국 패널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

2017년 8월 중국 패널업체 GVO의 첫 OLED 클린물류장비 수주 이후 2018년에는 BOE, CSOT, EDO 등의 OLED 장비 수주, 중국의 10.5세대 LCD투자와 본격적인 OLED 공정장비 수주가 시작된다. 2019년에도 지속 될 삼성디스플레이 신공장의 증장기 투자계획과 일반물류장비 수주로 꾸준한 신규수주를 전망한다. 다양해지는 장비 포트폴리오로 전방산업 성장에 따른 광범위한 수혜를 예상한다.

■ 6세대 증착기 수주 한 건에 최소 10% 주가 upside

6세대 OLED증착기 한 대는 2018년 총 수주금액의 10% 이상이고 이익률은 전체 공급장비 중 가장 높다. GVO, Truly, EDO의 양산용 증착기 수주 기대감과 신규OLED 업체의 양산 준비용 R&D 증착기(5.5세대 이하) 수주를 예상한다. 6세대 증착기 한 대 수주에 10% 이상의 주가 upside가 있고 이후 수주 확대도 가능하다. 캐논토키(Canon Tokki)의 증착기 capacity 증가는 제한적으로 에스에프에이의 수주가 기대된다. OLED 증착기는 장비포트폴리오 다변화의 최우선 요소다.

| | 매출액 (십억원) | 영업이익 (십억원) | 순이익 (십억원) | EPS (원) | 증감률 (%) | EBITDA (십억원) | PER (x) | EV/EBITDA (x) | PBR (x) | ROE (%) | DY (%) |
|-------|--------------|---------------|--------------|------------|------------|-----------------|------------|------------------|------------|------------|-----------|
| 2015A | 526 | 58 | 31 | 1,767 | (24.9) | 69 | 14.0 | 15.7 | 0.9 | 6.3 | 1.6 |
| 2016A | 1,320 | 121 | 78 | 4,484 | 153.8 | 194 | 7.2 | 6.9 | 1.0 | 14.7 | 3.5 |
| 2017F | 1,938 | 235 | 190 | 5,332 | 18.9 | 309 | 7.7 | 4.6 | 2.0 | 29.4 | 2.7 |
| 2018F | 2,078 | 238 | 193 | 5,376 | 0.8 | 315 | 7.6 | 4.4 | 1.6 | 24.1 | 2.7 |
| 2019F | 2,224 | 246 | 199 | 5,548 | 3.2 | 325 | 7.4 | 3.9 | 1.4 | 20.8 | 2.7 |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2월 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유진테크(084370)

| |
|-------------------|
| 매수(유지) |
| 목표가: 31,000원(상향) |
| 종가(12/5): 22,300원 |

디램 설비투자 증가의 수혜주

■ 목표주가 31,000원으로 24% 상향조정

국내 증착장비업체 중 디램 설비투자 증가의 수혜가 가장 큰 유진테크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31,000원으로 기존대비 24% 상향조정한다. 목표주가는 2018년 추정EPS에 목표PER 13배를 적용했다. 2018년에는 기존 디램용 장비의 성장에 3D 낸드용 장비의 성장성이 더해질 수 있어 반도체장비업체 중 최선호주로 추천한다.

■ 전체 매출액 중 디램용 장비 비중 높아 디램 설비투자 증가의 수혜도 커

2017년 유진테크 매출액 중 디램용 장비매출의 비중은 95%에 이른다. LPCVD장비는 디램에만 사용되고 플라즈마장비의 경우도 대부분 디램용으로 공급됐기 때문이다. 낸드용 장비매출 비중이 낮다 보니 2017년 다른 반도체장비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실적 성장이 부진했다. 하지만, 2018년은 달라질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디램 설비투자 증가폭이 낸드 설비투자 증가폭보다 커져 디램용 장비매출 비중이 높은 유진테크의 수혜가 확대될 것이다. 2018년 유진테크 매출액은 2,182억원으로 전년대비 69% 증가해 타 반도체증착장비업체들 평균 매출액 증가율 24%대비 높을 전망이다.

■ 2018년 디램용 LPCVD장비 매출액 1,493억원으로 38% 증가 예상

유진테크의 주력장비인 LPCVD의 2018년 매출액은 1,493억원으로 전년대비 38% 증가할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디램 신규투자 85K와 1x nm 공정전환투자 등으로 삼성전자향 LPCVD장비 매출은 전년대비 46% 증가할 전망이다. SK하이닉스의 경우도 1x nm 공정전환과 하반기 우시 신공장 장비발주로 LPCVD장비 수주규모가 올해대비 20% 증가할 것이다.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 디램 1x nm에서 유진테크의 LPCVD장비 적용공정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장비수주 규모가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 신규 ALD장비사업의 본격화

디램용 LPCVD장비에 치중되어 있는 사업구조의 변화를 위한 ALD장비사업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우선, 지난 11월 15일자로 Aixtron사의 반도체증착장비 사업인수가 완료되면서 4분기부터 일부 매출액이 반영되기 시작한다. 인수 금액은 71백만달러이고 주요 제품은 디램용 ALD장비가 주력으로 기존 ALD장비의 낮은 throughput을 개선시킨 장비이다. 2018년에는 475억원의 매출액을 예상한다. 인수한 ALD장비사업 외에 자체적으로도 개발 중인 ALD장비는 3D 낸드용이다. 고객사와의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고 2018년에는 최소 2~3대의 장비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 | 매출액 (십억원) | 영업이익 (십억원) | 순이익 (십억원) | EPS (원) | 증감률 (%) | EBITDA (십억원) | PER (x) | EV/EBITDA (x) | PBR (x) | ROE (%) | DY (%) |
|-------|--------------|---------------|--------------|------------|------------|-----------------|------------|------------------|------------|------------|-----------|
| 2015A | 95 | 19 | 20 | 904 | 29.3 | 22 | 14.4 | 6.5 | 1.5 | 11.5 | 1.5 |
| 2016A | 141 | 36 | 32 | 1,452 | 60.6 | 40 | 12.2 | 5.8 | 1.9 | 16.4 | 1.3 |
| 2017F | 129 | 32 | 19 | 853 | (41.3) | 39 | 26.1 | 10.1 | 2.2 | 8.7 | 1.0 |
| 2018F | 218 | 65 | 52 | 2,348 | 175.3 | 73 | 9.5 | 5.1 | 1.8 | 21.1 | 1.0 |
| 2019F | 251 | 62 | 53 | 2,366 | 0.8 | 69 | 9.4 | 5.1 | 1.6 | 17.8 | 1.0 |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2월 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주요 증시 지표

| 구 분 | | 11/30(목) | 12/1(금) | 12/4(월) | 12/5(화) | 12/6(수) | |
|------------------|--------|----------|----------|----------|----------|----------|--------|
| 유 가 증 권 | 종합주가지수 | 2,476.37 | 2,475.41 | 2,501.67 | 2,510.12 | 2,474.37 | |
| | 등락폭 | -36.53 | -0.96 | 26.26 | 8.45 | -35.75 | |
| | 등락종목 | 상승(상한) | 296(0) | 346(1) | 400(1) | 520(5) | 250(2) |
| | | 하락(하한) | 504(0) | 426(0) | 387(0) | 282(0) | 547(0) |
| | ADR | 94.55 | 92.14 | 93.64 | 96.47 | 92.53 | |
| | 이격도 | 10 일 | 98.17 | 98.36 | 99.51 | 99.92 | 98.76 |
| | | 20 일 | 97.81 | 97.94 | 99.07 | 99.47 | 98.21 |
| | 투자심리 | 40 | 40 | 50 | 50 | 40 | |
| | 거래량 | (백만 주) | 339 | 289 | 324 | 395 | 505 |
| | 거래대금 | (십억 원) | 9,398 | 5,740 | 6,056 | 5,927 | 6,583 |
| 코 스 닥 | 코스닥지수 | 771.42 | 787.7 | 782.45 | 774.12 | 768.39 | |
| | 등락폭 | -10.3 | 16.28 | -5.25 | -8.33 | -5.73 | |
| | 등락종목 | 상승(상한) | 318(8) | 745(5) | 469(6) | 664(6) | 460(8) |
| | | 하락(하한) | 854(0) | 378(0) | 684(1) | 483(0) | 686(0) |
| | ADR | 98.88 | 101.48 | 100.21 | 101.59 | 99.51 | |
| | 이격도 | 10 일 | 98.39 | 100.32 | 99.69 | 98.82 | 98.24 |
| | | 20 일 | 101.96 | 103.52 | 102.30 | 100.73 | 99.60 |
| | 투자심리 | 50 | 60 | 50 | 40 | 40 | |
| | 거래량 | (백만주) | 1054 | 884 | 821 | 860 | 961 |
| | 거래대금 | (십억원) | 7,136 | 6,900 | 6,956 | 6,871 | 7,402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 구 분 | 개 인 | 외국인 | 기관계 (금융투자) | (보험) | (투신) | (사모) | (은행) | (연기금 등) | 기 타 | | |
|------------------|--------|----------|------------|----------|---------|----------|----------|---------|--------|----------|----------|
| 유 가 증 권 | 매수 | 3,709.1 | 1,553.8 | 1,210.1 | 433.6 | 75.5 | 128.4 | 70.8 | 15.9 | 485.9 | 90.4 |
| | 매도 | 3,469.8 | 1,889.4 | 1,163.7 | 270.0 | 71.2 | 142.2 | 144.8 | 16.9 | 518.6 | 40.5 |
| | 순매수 | 239.2 | -335.5 | 46.4 | 163.7 | 4.3 | -13.7 | -74.1 | -1.0 | -32.7 | 49.9 |
| | 12월 누계 | -226.0 | -350.4 | 517.5 | 374.9 | 63.2 | 97.3 | 10.1 | 12.0 | -39.9 | 58.9 |
| | 17년 누계 | -5,890.2 | 7,727.1 | -6,737.7 | 8,687.6 | -2,073.9 | -3,530.5 | -312.6 | -775.9 | -8,732.7 | 4,900.9 |
| 코 스 닥 | 매수 | 6,504.5 | 617.0 | 249.0 | 84.4 | 11.2 | 51.2 | 57.1 | 3.2 | 41.9 | 40.8 |
| | 매도 | 6,443.9 | 525.0 | 402.7 | 113.0 | 13.2 | 139.3 | 68.1 | 5.6 | 63.5 | 39.8 |
| | 순매수 | 60.7 | 91.9 | -153.6 | -28.6 | -2.0 | -88.1 | -11.0 | -2.4 | -21.6 | 1.0 |
| | 12월 누계 | 85.6 | 63.6 | -115.2 | 72.8 | -2.1 | -62.9 | -32.5 | -12.3 | -78.1 | -34.1 |
| | 17년 누계 | 2,220.9 | 2,715.1 | -3,108.7 | 158.7 | -338.9 | -946.2 | -689.7 | -90.8 | -1,201.8 | -1,827.3 |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 투 신 | | | | 연 기 금 | | | |
|-------------|--------|------------|---------|-------------|--------|---------|---------|
| 순 매 수 | | 순 매 도 | | 순 매 수 | | 순 매 도 | |
| 미분류 | 34,271 | 전기전자 | -8,818 | 서비스업 | 9,486 | 운수장비 | -30,754 |
| 운수창고 | 5,583 | 철강금속 | -8,276 | 화학 | 9,274 | 의약품 | -4,052 |
| 음식료 | 3,961 | 운수장비 | -6,868 | 전기전자 | 9,267 | 운수창고 | -3,197 |
| KODEX 200 | 31,139 | 삼성중공업 | -10,817 | SK하이닉스 | 12,505 | 삼성중공업 | -24,659 |
| 오리온홀딩스 | 4,868 | POSCO | -6,074 | 넷마블게임즈 | 6,286 | 현대글로벌비스 | -8,436 |
| KODEX 200TR | 3,333 | LG이노텍 | -3,925 | ARIRANG 200 | 5,267 | 현대차 | -8,217 |
| 현대글로벌비스 | 3,047 | KINDEX 200 | -3,466 | LG유플러스 | 4,948 | KT&G | -4,114 |
| 대한항공 | 2,366 | LG화학 | -3,227 | 엔씨소프트 | 3,913 | 오리온 | -3,795 |

(체결기준: 백만원)

| 은 행 | | | | 보 험 | | | |
|--------------------|--------|----------------------|--------|-------------|--------|-----------------|--------|
| 순 매 수 | | 순 매 도 | | 순 매 수 | | 순 매 도 | |
| 미분류 | 31,675 | 운수장비 | -3,837 | 미분류 | 23,180 | 운수장비 | -5,409 |
| 전기전자 | 1,379 | 의약품 | -832 | 전기전자 | 5,069 | 기타금융업 | -3,241 |
| 은행 | 931 | 서비스업 | -694 | 기계 | 3,853 | 의약품 | -1,839 |
| KODEX 레버리지 | 9,646 | 삼성중공업 | -2,078 | ARIRANG 200 | 6,055 | 삼성중공업 | -6,204 |
|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 8,314 | TIGER 경기방어 | -1,446 | SK하이닉스 | 5,568 | 현대로보틱스 | -3,055 |
| TRUE 코스피 양매도 ETN | 4,630 | 현대차 | -1,240 | TIGER 200 | 4,358 | ARIRANG 고배당주 | -2,028 |
| KINDEX 베트남VN30(합성) | 2,106 | ARIRANG 단기우량채권 | -744 | KODEX 200 | 3,624 | TIGER 200 중공업 | -1,981 |
| TIGER 200선물레버리지 | 2,018 | KBSTAR 200선물인버스2X | -688 | 현대건설기계 | 2,623 | 현대건설 | -1,754 |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 기 관 | | | | 외 국 인 | | | |
|-----------|--------|------------|---------|--------|--------|---------|----------|
| 순 매 수 | | 순 매 도 | | 순 매 수 | | 순 매 도 | |
| 전기전자 | 36,489 | 운수장비 | -76,819 | 기타금융업 | 40,289 | 전기전자 | -249,110 |
| 통신업 | 15,296 | 미분류 | -34,206 | 서비스업 | 22,985 | 운수장비 | -47,876 |
| 증권 | 15,018 | 의약품 | -17,109 | 화학 | 9,332 | 기계 | -16,469 |
| 삼성전자 | 51,281 | 삼성중공업 | -71,678 | 현대차 | 20,605 | 삼성전자 | -192,606 |
| SK하이닉스 | 10,190 | KODEX 레버리지 | -31,256 | 하나금융지주 | 15,812 | 삼성중공업 | -38,334 |
| 대한항공 | 8,922 | KODEX 200 | -16,030 | LG화학 | 14,998 | LG이노텍 | -17,771 |
| 현대모비스 | 8,369 | LG이노텍 | -15,950 | 엔씨소프트 | 14,606 | LG디스플레이 | -16,465 |
| LG유플러스 | 7,871 | LG화학 | -13,144 | LG전자 | 11,337 | 삼성전기 | -14,025 |
| 아모레퍼시픽 | 6,617 | 현대차 | -12,052 | 넷마블게임즈 | 11,033 | SK하이닉스 | -12,571 |
| DB손해보험 | 6,437 | 현대중공업 | -8,357 | SK텔레콤 | 10,749 | 현대중공업 | -12,057 |
| 넷마블게임즈 | 6,189 | POSCO | -8,353 | KB금융 | 10,123 | 현대모비스 | -10,629 |
| TIGER 200 | 5,969 | 삼성전기 | -8,148 | SK | 8,250 | 한국전력 | -9,214 |
| 오리온홀딩스 | 5,904 | GKL | -7,813 | GKL | 7,934 | LG유플러스 | -8,233 |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 | 투 신 | | 연 기 금 | | | | |
|----------|-------|-------|---------|---------|-------|----------|--------|
| | 순 매 수 | 순 매 도 | 순 매 수 | 순 매 도 | | | |
| 금융 | 4,079 | 연구,개발 | -85,391 | 방송서비스 | 3,789 | 기계,장비 | -4,398 |
| IT부품 | 2,452 | 반도체 | -6,849 | 반도체 | 2,812 | 계약 | -3,754 |
| 화학 | 2,438 | 계약 | -4,908 | IT부품 | 1,526 | 도매 | -3,046 |
| 제이콘텐트리 | 4,561 | 신라젠 | -85,539 | CJ E&M | 3,247 | 제이브이엠 | -3,597 |
| 솔브레인 | 2,996 | 메카로 | -4,318 | 제이콘텐트리 | 1,478 | 셀트리온헬스케어 | -3,218 |
| 이녹스첨단소재 | 2,348 | 티슈진 | -3,567 | 원익QnC | 1,204 | 삼천당계약 | -3,008 |
| 모두투어 | 2,260 | 펼어비스 | -1,744 | 피에스케이 | 1,113 | 펼어비스 | -2,089 |
| JYP Ent. | 1,825 | 셀트리온 | -1,551 | SK머티리얼즈 | 1,079 | 휴젤 | -1,955 |

(체결기준: 백만원)

| | 은 행 | | 보 험 | | | | |
|-----------|-------|----------|--------|---------|-------|----------|--------|
| | 순 매 수 | 순 매 도 | 순 매 수 | 순 매 도 | | | |
| 계약 | 327 | 디지털컨텐츠 | -1,283 | 디지털컨텐츠 | 2,679 | 도매 | -1,611 |
| 연구,개발 | 322 | 음식료,담배 | -602 | 반도체 | 919 | 방송서비스 | -1,310 |
| 화학 | 77 | 도매 | -357 | IT부품 | 645 | 계약 | -1,048 |
| 메디포스트 | 542 | 펼어비스 | -1,619 | 메카로 | 2,117 | 셀트리온헬스케어 | -1,572 |
| 바이로메드 | 322 | 매일유업 | -578 | 이녹스첨단소재 | 1,428 | CJ오쇼핑 | -773 |
| 알에스오โต메이션 | 300 | 이오테크닉스 | -361 | 위메이드 | 1,189 | 피에스케이 | -746 |
| 유니테스트 | 281 | 에스티팜 | -299 | 더블유게임즈 | 740 | 와이지-원 | -705 |
| 동국계약 | 188 | 셀트리온헬스케어 | -297 | 웹젠 | 621 | 메디투스 | -698 |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 | 기 관 | | 외 국 인 | | | | |
|---------|-------|----------|---------|----------|--------|--------|---------|
| | 순 매 수 | 순 매 도 | 순 매 수 | 순 매 도 | | | |
| 금융 | 4,660 | 연구,개발 | -91,916 | 연구,개발 | 92,658 | 반도체 | -9,935 |
| 방송서비스 | 3,642 | 계약 | -15,905 | 도매 | 5,602 | IT부품 | -6,808 |
| 사업지원 | 3,311 | 미분류 | -14,399 | 통신장비 | 4,030 | 비금속 | -6,799 |
| 제이콘텐트리 | 6,265 | 신라젠 | -88,393 | 신라젠 | 86,523 | 셀트리온 | -14,012 |
| 셀트리온 | 4,445 | 티슈진 | -12,587 | CMG계약 | 7,140 | 인터플렉스 | -10,093 |
| 이녹스첨단소재 | 3,776 | 셀트리온헬스케어 | -7,636 | 셀트리온헬스케어 | 4,096 | 메카로 | -5,881 |
| 솔브레인 | 3,544 | 메디투스 | -6,757 | 파라다이스 | 3,449 | 유진기업 | -3,901 |
| 모두투어 | 3,399 | 파라다이스 | -5,430 | 제일홀딩스 | 3,352 | 서울반도체 | -2,938 |
| CJ E&M | 3,106 | 펼어비스 | -5,323 | 크리스탈 | 3,187 | 휴젤 | -2,932 |
| 강스템바이오텍 | 2,196 | 휴젤 | -4,493 | 민앤지 | 3,144 | 마크로젠 | -2,200 |
| 애플론 | 1,705 | 메카로 | -4,365 | 바이로메드 | 3,135 | 솔브레인 | -1,586 |
| 인터플렉스 | 1,533 | 제이브이엠 | -4,208 | 메디투스 | 2,989 | 포스코퀀텍 | -1,530 |
| 한스바이오메드 | 1,345 | 비에이치 | -3,641 | CJ E&M | 2,883 | 덕산네오룩스 | -1,515 |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 KOSPI | | | | KOSDAQ | | | |
|-----------------|------|--------|------|--------|------|----------|------|
| 기 관 | | 외 국 인 | | 기 관 | | 외 국 인 | |
| TIGER | 41 일 | 텔코웨어 | 22 일 | 이화공영 | 30 일 | 나이스디앤비 | 33 일 |
| 원유선물Enhanced(H) | | | | AP위성 | 24 일 | NICE평가정보 | 32 일 |
| 에스엘 | 38 일 | GKL | 20 일 | 딜리 | 23 일 | 판타지오 | 31 일 |
|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 | 33 일 | LG화학 | 16 일 | 우리기술 | 22 일 | 진로발효 | 27 일 |
| 신영증권 | 28 일 | 선도전기 | 15 일 | 수성 | 20 일 | 경동제약 | 24 일 |
| 에이엔피 | 24 일 | 한국철강 | 12 일 | 제우스 | 20 일 | 골드퍼시픽 | 23 일 |
| 동일산업 | 23 일 | 대동전자 | 11 일 | 피델릭스 | 20 일 | 성우테크론 | 20 일 |
| 동서 | 21 일 | 도레이케미칼 | 11 일 | 에프에스티 | 17 일 | 하이츠항공 | 19 일 |
| 대동공업 | 21 일 | 아이엔지생명 | 10 일 | | | |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 KOSPI | | | | KOSDAQ | | | |
|--------|---------|-------|--------|----------|--------|----------|---------|
| 기 관 | | 외 국 인 | | 기 관 | | 외 국 인 | |
| 삼성전자 | 152,893 | POSCO | 73,262 | 제이콘텐트리 | 26,103 | 신라젠 | 222,028 |
| 아모레퍼시픽 | 84,668 | 현대차 | 71,489 | 셀트리온 | 16,468 | 셀트리온헬스케어 | 60,803 |
| LG유플러스 | 82,932 | LG화학 | 64,544 | CJ오쇼핑 | 16,275 | 필어비스 | 13,859 |
| 현대모비스 | 74,115 | LG전자 | 64,443 | 스튜디오드래곤 | 14,885 | 에코프로 | 12,361 |
| SK텔레콤 | 56,086 | KB금융 | 63,494 | 모두투어 | 14,324 | 동진씨미켄 | 9,443 |
| 팬오션 | 51,311 | 엔씨소프트 | 40,091 | 메디톡스 | 11,664 | 텔콘 | 8,270 |
| POSCO | 49,253 | 현대제철 | 35,418 | JYP Ent. | 6,800 | 엘앤에프 | 7,345 |
| 넷마블게임즈 | 44,534 | NAVER | 33,241 | 메디포스트 | 6,489 | 비에이치 | 6,513 |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 KOSPI | | | | KOSDAQ | | | |
|-----------|--------|--------|--------|---------|-------|-------|-------|
| 종 목 | 기 관 | 외 국 인 | 합 계 | 종 목 | 기 관 | 외 국 인 | 합 계 |
| 기타금융업 | 5,446 | 40,289 | 45,735 | 금융 | 4,660 | 1,599 | 6,259 |
| 서비스업 | 5,584 | 22,985 | 28,569 | 방송서비스 | 3,642 | 2,142 | 5,784 |
| 통신업 | 15,296 | 2,585 | 17,881 | 교육 | 561 | 474 | 1,035 |
| 엔씨소프트 | 3,605 | 14,606 | 18,211 | CMG제약 | 723 | 7,140 | 7,863 |
| 넷마블게임즈 | 6,189 | 11,033 | 17,222 | CJ E&M | 3,106 | 2,883 | 5,989 |
| LG전자 | 2,956 | 11,337 | 14,293 | 이녹스첨단소재 | 3,776 | 117 | 3,893 |
| SK텔레콤 | 2,350 | 10,749 | 13,099 | 유니테스트 | 1,199 | 1,057 | 2,255 |
| KB금융 | 1,916 | 10,123 | 12,039 | 와이아이케이 | 758 | 1,095 | 1,852 |
| 대한항공 | 8,922 | 302 | 9,224 | 와이엠씨 | 850 | 928 | 1,778 |
| SK | 708 | 8,250 | 8,958 | 대한광통신 | 110 | 1,641 | 1,752 |
| KODEX 인버스 | 5,121 | 1,520 | 6,641 | 애플클론 | 1,705 | 29 | 1,734 |
| SK이노베이션 | 373 | 6,243 | 6,616 | 에스티아이 | 95 | 1,613 | 1,708 |
| 기아차 | 4,588 | 1,934 | 6,522 | 에프에스티 | 1,241 | 266 | 1,507 |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 KOSPI | | | | KOSDAQ | | | |
|----------|------|--------------|------|----------|------|---------|------|
| 기 관 | | 외 국 인 | | 기 관 | | 외 국 인 | |
| 한양증권 | 35 일 | 한국프랜지 | 22 일 | 티플렉스 | 22 일 | 슈프리마 | 16 일 |
| KSS해운 | 26 일 | S&T중공업 | 22 일 | 서연탐메탈 | 22 일 | 하림 | 16 일 |
| 경동도시가스 | 25 일 | 에스엘 | 20 일 | 대양제지 | 22 일 | 인터파크홀딩스 | 16 일 |
| 대한전선 | 25 일 | 한화테크윈 | 19 일 | 에스앤씨엔진그룹 | 16 일 | 큐렉소 | 14 일 |
| 동일제강 | 22 일 | KODEX 은행 | 17 일 | 유니셀 | 14 일 | 덕산네오룩스 | 13 일 |
| 하이트진로홀딩스 | 21 일 | TIGER KTOP30 | 14 일 | 키움스팩4호 | 13 일 | HB테크놀러지 | 13 일 |
| 일정실업 | 19 일 | 풍산 | 14 일 | 신진에스엠 | 13 일 | 크리스탈신소재 | 12 일 |
| 대동전자 | 17 일 | 현대모비스 | 13 일 | 모트렉스 | 12 일 | SM C&C | 12 일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 KOSPI | | | | KOSDAQ | | | |
|------------|---------|-----------|----------|----------|----------|----------|---------|
| 기 관 | | 외 국 인 | | 기 관 | | 외 국 인 | |
| SK하이닉스 | -67,482 | 삼성전자 | -792,283 | 신라젠 | -102,148 | 셀트리온 | -75,317 |
| KODEX 레버리지 | -61,729 | SK하이닉스 | -252,452 | 셀트리온헬스케어 | -65,651 | 인터플렉스 | -24,626 |
| 삼성중공업 | -55,030 | LG유플러스 | -67,309 | 체리부로 | -18,035 | 모두투어 | -13,088 |
| LG화학 | -43,937 | LG이노텍 | -56,503 | 인터플렉스 | -14,585 | JYP Ent. | -9,914 |
| 삼성SDI | -40,474 | 현대모비스 | -47,373 | 비즈니스온 | -14,269 | 스튜디오드래곤 | -7,826 |
| LG이노텍 | -39,065 | TIGER 200 | -43,907 | 티슈진 | -12,311 | 오가닉티코스메틱 | -6,789 |
| KODEX 200 | -28,751 | 삼성SDI | -34,639 | 서울반도체 | -12,253 | 마кро젠 | -6,594 |
| 삼성전기 | -27,916 | 삼성전기 | -31,865 | 이녹스첨단소재 | -10,810 | 아모텍 | -6,421 |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 종 목 | KOSPI | | | KOSDAQ | | | |
|----------|---------|----------|----------|---------|---------|--------|---------|
| | 기 관 | 외 국 인 | 합 계 | 기 관 | 외 국 인 | 합 계 | |
| 전기전자 | 36,489 | -249,110 | -212,622 | 반도체 | -13,000 | -9,935 | -22,935 |
| 운수장비 | -76,819 | -47,876 | -124,694 | 미분류 | -14,399 | 90 | -14,309 |
| 미분류 | -34,206 | 1,584 | -32,622 | 제약 | -15,905 | 3,476 | -12,429 |
| 삼성중공업 | -71,678 | -38,334 | -110,012 | 티슈진 | -12,587 | -73 | -12,660 |
| LG이노텍 | -15,950 | -17,771 | -33,720 | 메카로 | -4,365 | -5,881 | -10,247 |
| 삼성전기 | -8,148 | -14,025 | -22,173 | 휴젤 | -4,493 | -2,932 | -7,425 |
| 현대중공업 | -8,357 | -12,057 | -20,414 | SK머티리얼즈 | -3,203 | -778 | -3,981 |
| 삼성엔지니어링 | -3,167 | -6,638 | -9,805 | 케이엠더블유 | -2,249 | -431 | -2,680 |
| 고려아연 | -6,239 | -3,257 | -9,496 | 메디포스트 | -1,404 | -1,048 | -2,451 |
| 삼성바이오로직스 | -428 | -7,151 | -7,578 | 오디텍 | -1,923 | -491 | -2,414 |
| 풍산 | -936 | -4,708 | -5,644 | 원익IPS | -1,026 | -1,368 | -2,394 |
| 카카오 | -136 | -5,292 | -5,428 | 매일유업 | -2,153 | -200 | -2,353 |
| LIG넥스원 | -124 | -4,825 | -4,948 | 포스코켄텍 | -807 | -1,530 | -2,337 |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 KOSPI | | | |
|-----------|-----|--------|--|
| 종 목 | 주 수 | 금 액 | |
| LG디스플레이 | 641 | 19,581 | |
| SK하이닉스 | 204 | 15,877 | |
| 삼성전자 | 6 | 15,099 | |
| 넷마블게임즈 | 59 | 10,780 | |
| 카카오 | 61 | 8,480 | |
| KT&G | 61 | 7,256 | |
| KODEX 200 | 212 | 6,971 | |
| 아모레퍼시픽 | 20 | 6,579 | |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KOSDAQ | | | |
|----------|-----|--------|--|
| 종 목 | 주 수 | 금 액 | |
| 신라젠 | 897 | 87,449 | |
| 셀트리온 | 90 | 18,533 | |
| 셀트리온헬스케어 | 122 | 10,126 | |
| 파라다이스 | 273 | 7,169 | |
| 코미팜 | 144 | 6,053 | |
| CMG제약 | 547 | 4,222 | |
| 인터플렉스 | 71 | 3,434 | |
| 차바이오택 | 118 | 2,574 | |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 KOSPI | | | |
|----------|--------|-----------|--|
| 종 목 | 주 수 | 금 액 | |
| 삼성전자 | 3,683 | 9,439,565 | |
| SK하이닉스 | 34,763 | 2,708,075 | |
| LG디스플레이 | 48,035 | 1,469,881 | |
| 삼성바이오로직스 | 3,326 | 1,182,256 | |
| 엔씨소프트 | 2,488 | 1,122,237 | |
| 아모레퍼시픽 | 3,010 | 1,012,898 | |
| LG생활건강 | 826 | 1,012,682 | |
| 하나금융지주 | 21,591 | 1,012,636 | |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KOSDAQ | | | |
|----------|--------|-----------|--|
| 종 목 | 주 수 | 금 액 | |
| 셀트리온 | 20,241 | 4,153,360 | |
| 신라젠 | 9,936 | 894,255 | |
| 셀트리온헬스케어 | 6,558 | 534,453 | |
| 로엔 | 3,190 | 354,140 | |
| 바이로메드 | 1,951 | 290,695 | |
| 파라다이스 | 10,736 | 268,390 | |
| 포스코캠텍 | 4,141 | 137,472 | |
| 에이치엘비 | 3,642 | 135,844 | |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 KOSPI | | | |
|-----------|--------|-------------|--------|
| 순 증 | | 순 감 | |
| 미분류 | 9,905 | 서비스업 | -3,245 |
| 기타금융업 | 3,734 | 의료정밀 | -3,202 |
| 운수창고 | 1,261 | 증권 | -3,111 |
| KODEX 200 | 13,412 | 미래산업 | -3,107 |
| 팬오션 | 3,011 | 기업은행 | -1,745 |
| 우리은행 | 1,739 | 두산인프라코어 | -1,570 |
| KB금융 | 1,591 | 한화생명 | -1,550 |
| 아이엔지생명 | 1,399 | 대우건설 | -1,530 |
| 하나금융지주 | 1,031 | 삼성엔지니어링 | -1,508 |
| 두산중공업 | 1,016 | ARIRANG 200 | -1,436 |
| 한국항공우주 | 896 | 파워 200 | -1,319 |
| LG | 792 | 삼성중공업 | -1,281 |
| 영진약품 | 731 | 신성이엔지 | -1,177 |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KOSDAQ | | | |
|----------|-------|--------|--------|
| 순 증 | | 순 감 | |
| 반도체 | 3,138 | 제약 | -2,971 |
| 연구,개발 | 2,087 | 금융 | -861 |
| IT부품 | 1,535 | 음식료,담배 | -836 |
| 신라젠 | 1,937 | 셀트리온 | -2,083 |
| 주성엔지니어링 | 1,290 | 하림 | -592 |
| 네패스 | 1,044 | 제이콘텐츠리 | -526 |
| 차이나하오란 | 1,000 | 처음앤씨 | -469 |
| 상보 | 998 | 유니슨 | -432 |
| 셀트리온헬스케어 | 959 | 씨젠 | -331 |
| 이트론 | 853 | 루트로닉 | -325 |
| 글로벌텍스프리 | 495 | 지엔코 | -322 |
| CMG제약 | 494 | 서희건설 | -315 |
| JYP Ent. | 487 | 하림홀딩스 | -312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

| 구 분 | 연간 누계 | 월간 누계 | 5일간 누계 | 11/30(목) | 12/1(금) | 12/4(월) | 12/5(화) | 12/6(수) |
|-------|----------|--------|--------|----------|---------|---------|---------|---------|
| 외국인 | 7,727.1 | -350.4 | -950.5 | -600.0 | -193.9 | 147.2 | 31.8 | -335.5 |
| 기관계 | -6,737.7 | 517.5 | 888.0 | 370.5 | 89.8 | 88.2 | 293.2 | 46.4 |
| (투신) | -3,530.5 | 97.3 | 125.8 | 28.5 | 51.6 | 14.7 | 44.7 | -13.7 |
| (연기금) | 2,873.3 | 108.8 | 155.4 | 46.6 | 12.3 | 37.0 | 38.2 | 21.3 |
| (은행) | -775.9 | 12.0 | 11.6 | -0.4 | 6.2 | 1.1 | 5.8 | -1.0 |
| (보험) | -2,073.9 | 63.2 | 106.7 | 43.5 | 26.6 | 13.1 | 19.2 | 4.3 |
| 개인 | -5,890.2 | -226.0 | -32.7 | 193.3 | 140.5 | -258.2 | -347.5 | 239.2 |
| 기타 | 4,900.9 | 58.9 | 95.1 | 36.2 | -36.3 | 22.8 | 22.6 | 49.9 |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 구 분 | 2015 | 2016 | 2017 | 11/29(수) | 11/30(목) | 12/1(금) | 12/4(월) | 12/5(화) |
|--------------|----------|----------|----------|----------|----------|----------|----------|----------|
| KOSPI | 1,961.3 | 2,026.5 | 2,512.9 | 2,512.9 | 2,476.4 | 2,475.4 | 2,501.7 | 2,510.1 |
| 고객예탁금 | 22,695.6 | 22,754.4 | 27,071.5 | 26,006.1 | 26,060.3 | 26,348.1 | 25,794.3 | 25,596.9 |
| (증감액) | 6,853.1 | 58.8 | 3,305.9 | -1,065.4 | 54.2 | 287.8 | -553.8 | -197.4 |
| (회전율) | 28.8 | 24.8 | 48.5 | 46.2 | 63.4 | 48.0 | 50.4 | 50.0 |
| 실질예탁금증감 | 7,687.7 | -3,211.2 | -1,285.2 | -630.0 | -129.8 | 68.2 | -325.4 | -215.3 |
| 신용잔고(KOSPI) | 3,035.6 | 2,929.1 | 4,736.3 | 4,785.1 | 4,758.5 | 4,744.8 | 4,775.6 | 4,780.4 |
| 신용잔고(KOSDAQ) | 3,491.2 | 3,848.7 | 5,244.6 | 5,260.5 | 5,271.7 | 5,276.7 | 5,275.8 | 5,305.9 |
| 미수금 | 151.0 | 125.6 | 165.6 | 195.8 | 212.4 | 176.6 | 200.9 | 196.7 |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 구 분 | 설정 잔액 | 연간 누계 | 월간 누계 | 11/28(화) | 11/29(수) | 11/30(목) | 12/1(금) | 12/4(월) |
|----------|---------|--------|-------|----------|----------|----------|---------|---------|
| 전체주식형 | 73,538 | -2,325 | 5 | 295 | 24 | 504 | 54 | -49 |
| (ex.ETF) | | -3,877 | 111 | 112 | 85 | 83 | 83 | 28 |
| 국내주식형 | 54,927 | -3,935 | -64 | 261 | -13 | 424 | 15 | -79 |
| (ex.ETF) | | -5,554 | 45 | 77 | 48 | 47 | 47 | -2 |
| 해외주식형 | 18,611 | 1,610 | 69 | 35 | 37 | 80 | 39 | 30 |
| (ex.ETF) | | 1,677 | 66 | 35 | 37 | 36 | 36 | 30 |
| 주식혼합형 | 9,232 | 1,145 | 30 | 17 | 12 | 67 | 3 | 27 |
| 채권혼합형 | 19,714 | -6,798 | -17 | -47 | -35 | -29 | -29 | 12 |
| 채권형 | 99,130 | -3,719 | -619 | -60 | -66 | 109 | -312 | -307 |
| MMF | 115,264 | 7,103 | 1,118 | -766 | -991 | -3,216 | 658 | 460 |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 국가 | 연간 누계 | 월간 누계 | 5일간 누계 | 11/30(목) | 12/1(금) | 12/4(월) | 12/5(화) | 12/6(수) |
|-------|--------|-------|--------|----------|---------|---------|---------|---------|
| 한국 | 6,683 | -321 | -874 | -552 | -179 | 136 | 29 | -307 |
| 대만 | 5,472 | -693 | -1,148 | -456 | -256 | -48 | -19 | -370 |
| 인도 | 8,754 | 1 | -93 | -94 | - | 1 | - | - |
| 인도네시아 | -2,727 | -80 | -245 | -165 | - | -63 | -17 | - |
| 태국 | -590 | -68 | -73 | -4 | -63 | -5 | - | - |
| 남아공 | -4,269 | 202 | -452 | -654 | 13 | 190 | - | - |
| 필리핀 | 1,024 | -16 | -16 | - | -4 | -9 | -3 | -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 구분 | 2016년말 | 11/30(목) | 12/1(금) | 12/4(월) | 12/5(화) | 12/6(수) |
|-----------------|----------|----------|----------|----------|----------|----------|
| 회사채 (AA-) | 2.14 | 2.63 | 2.64 | 2.64 | 2.66 | 2.64 |
| 회사채 (BBB-) | 8.27 | 8.89 | 8.89 | 8.90 | 8.92 | 8.90 |
| 국고채 (3년) | 1.64 | 2.08 | 2.08 | 2.08 | 2.11 | 2.01 |
| 국고채 (5년) | 1.80 | 2.26 | 2.28 | 2.27 | 2.30 | 2.27 |
| 국고채 (10년) | 2.08 | 2.48 | 2.49 | 2.49 | 2.50 | 2.47 |
| 미 국채 (10년) | 2.56 | 2.41 | 2.36 | 2.37 | 2.35 | - |
| 일 국채 (10년) | 0.06 | 0.04 | 0.04 | 0.04 | 0.05 | - |
| 원/달러 | 1,210.50 | 1,088.20 | 1,086.40 | 1,088.70 | 1,085.80 | 1,093.60 |
| 원/100엔 | 1,030.04 | 971.52 | 964.31 | 966.35 | 963.27 | 970.19 |
| 엔/달러 | 117.52 | 112.01 | 112.66 | 112.94 | 112.72 | 112.72 |
| 달러/유로 | 1.05 | 1.19 | 1.19 | 1.19 | 1.18 | 1.18 |
| CRB 지수 | 193.97 | 191.98 | 193.52 | 191.51 | 190.28 | - |
| LME 지수 | 2,663.2 | 3,176.2 | 3,219.4 | 3,206.0 | 3,115.3 | - |
| BDI | 961 | 1,578 | 1,626 | 1,662 | 1,666 | - |
| 유가 (WTI, 달러/배럴) | 53.90 | 57.37 | 58.36 | 57.41 | 57.46 | - |
| 금 (달러/온스) | 1,131.35 | 1,274.90 | 1,278.80 | 1,275.70 | 1,265.60 | -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 월 | 화 | 수 | 목 | 금 |
|---|---|--|--|--|
| 27 | 28 | 29 | 30 | 1 |
| | 美> 10월 신규주택매매(천건) (685, 624, 645) 10월 도매 재고 MoM (-0.4%, 0.4%, 0.1%) 11월 소비자기대지수 (129.5, 124.0, 125.9) 유럽> 10월 M3 통화공급 YoY (5.0%, 5.1%, 5.1%) |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3.1%, n/a, 0.1%) 3분기 GDP 연간화 QoQ (3.3%, 3.2%, 3.0%) 유럽> 11월 소비자기대지수 (0.1, 0.1, 0.1) | 韓> 금융통화위원회 (1.50%, 1.50%, 1.25%)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238, 240, 239) 10월 개인소득 (0.4%, 0.3%, 0.4%) 11월 시카고 구매자협회 (63.9, 62.0, 66.2) 日> 10월 광공업생산 MoM (0.5%, 1.8%, -1.0%) | 韓> 3Q GDP YoY (3.8%, 3.6%, 3.6%) 11월 CPI YoY (1.3%, 1.8%, 1.8%) 11월 수출 YoY (9.6%, 10.2%, 7.1%) 美> 11월 마켓 제조업 PMI (53.9, 54.0, 53.8) 中> 11월 차이신 중국 PMI 제조업 (50.8, 50.9, 51.0) 유럽> 11월 유로존 제조업 PMI (60.1, 60.0, 60.0) |
| 4 | 5 | 6 | 7 | 8 |
| 美> 10월 내구재주문 (-0.8%, -1.1%, -1.2%) 10월 제조업수주 (-0.1%, -0.4%, 1.4%) | 美> 10월 무역수지(십억달러) (-48.7, -45.4, -43.5) |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n/a, n/a, -3.1%) |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238) 유럽> 3Q GDP SA YoY (n/a, 2.5%, 2.5%) | 美> 11월 비농업고용자수 변동(천명) (n/a, 210, 261) 11월 실업률 (n/a, 4.1%, 4.1%) 12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n/a, 98.9, 98.5) 10월 도매재고 MoM (n/a, n/a, -0.4%) 日> 3Q GDP SA YoY (n/a, 0.1%, 0.1%) 10월 BoP 경상수지(십억엔) (n/a, n/a, 2271.2) |
| 11 | 12 | 13 | 14 | 15 |
| 中> 11월 CPI YoY (n/a, 1.8%, 1.9%) 11월 PPI YoY (n/a, 5.8%, 6.9%) | 美> 11월 PPI MoM (n/a, n/a, 0.4%) 유럽> 12월 ZEW 서베이 예상 (n/a, n/a, 30.9) 日> 11월 PPI YoY (n/a, n/a, 3.4%) 10월 3차 산업지수 MoM (n/a, n/a, -0.2%) | 美> FOMC 금리결정 (n/a, 1.50%, 1.25%)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n/a, n/a, -3.1%) 11월 CPI MoM (n/a, 0.4%, 0.1%) 日> 10월 핵심기계수주 MoM (n/a, n/a, -8.1%) | 韓> 선물옵션만기일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n/a) 11월 소매판매 추정 MoM (n/a, 0.2%, 0.2%) 12월 마켓 제조업 PMI (n/a, n/a, n/a) 유럽> ECB 통화정책회의 (n/a, -0.4%, -0.4%) 12월 마켓 제조업 PMI (n/a, n/a, n/a) 日> 12월 닛케일 제조업 PMI (n/a, n/a, 53.6) | 韓> KOSDAQ 150 정기변경 美> 11월 광공업생산 MoM (n/a, n/a, 0.9%) 日> 4Q 단칸 대형 제조업 지수 (n/a, n/a, 22) 4Q 단칸 대형 전체산업 Capex (n/a, n/a, 7.7%)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식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